

리아호나

우리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12쪽

지명받은 성역에
진심이 담길 때,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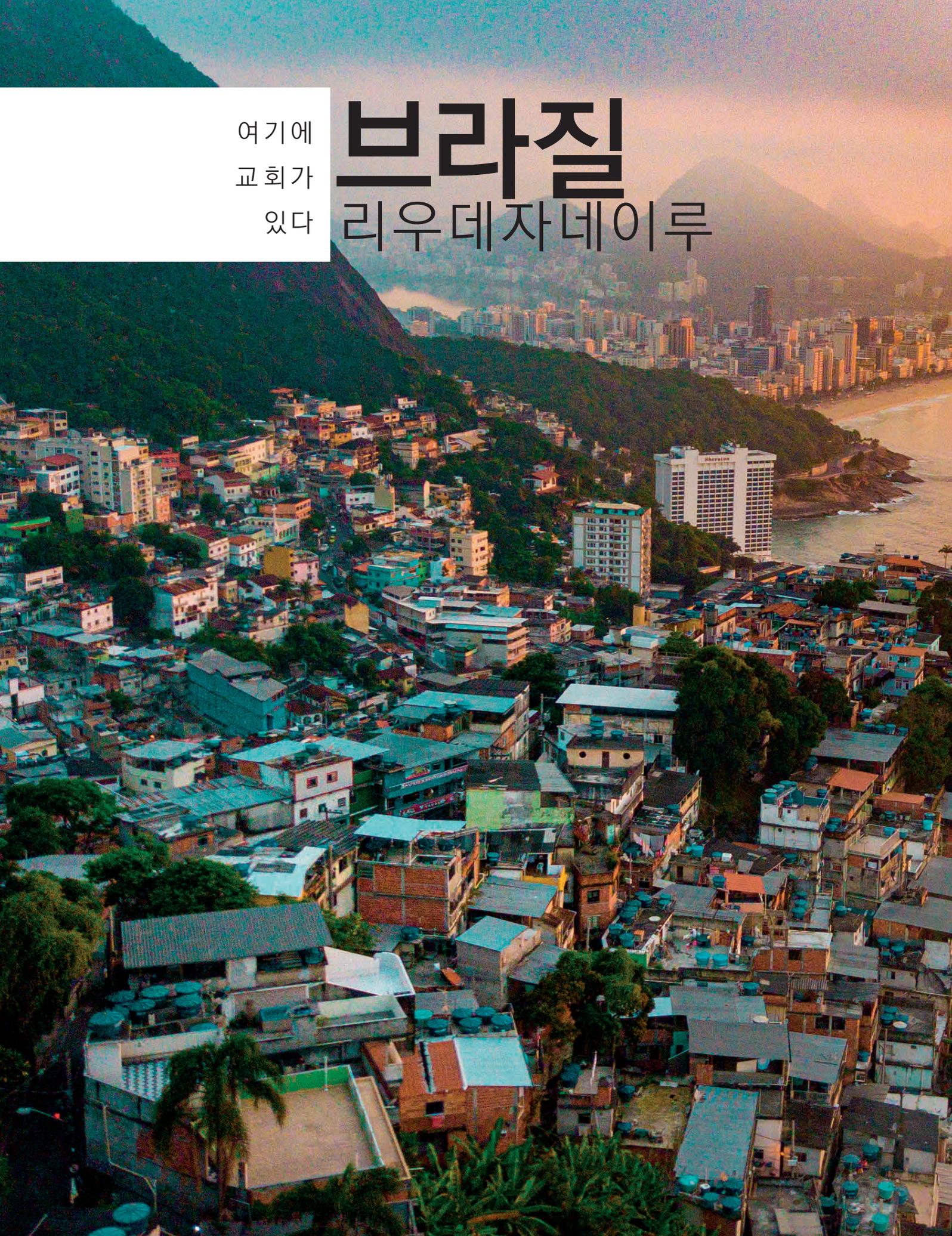
버림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
24쪽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한 네 가지 방법,
28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 지역 교회의 동력이 되는 여러 중심지 중 하나이다. 곧 이곳에서 성전이 헌납될 것이다. 다음은 브라질 지역의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다.

1.4  140만 명의 교회 회원
(브라질인 151명 중 1명 또는 브라질 인구의 0.67%가 후기 성도이다)

스태이크  273

2,111  와드 및 지부

가족 역사 센터  355

6  성전

선교부  35
A IGREJA DE JESUS CRISTO DOS SANTOS DOS ULTIMOS DIAS

1929 브라질에서 첫 번째 개종자들이 나온다

1966 상파울루에 첫 번째 스타이크가 조직되다

2001 상호부조회가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받다

1978 남미 지역의 첫 번째 성전인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이 헌납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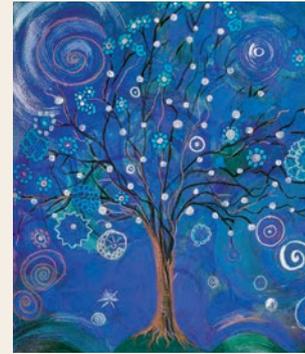
성탄절에
구주의 빛을 나누기
8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십시오
리처드 나이젤 홀자펠 장로
18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2



선물을 받으십시오
제이컵 알 존스
28

복음: 변화하는 시대의 빛

20년에 우리는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해 세계 각지에 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물몬경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신앙과 금식으로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우리 영혼의 빛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다음 기사들과 다른 기사들이 여러분이 성탄절의 영, 곧 주님의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한지를 가르칩니다.(12쪽 참조)
- “성탄절에 구주의 빛을 나누기”라는 기사에서 성탄 절기에 성역을 행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8쪽 참조)
- 제이컵 존스가 우리 삶에 성신의 은사를 초대하기 위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28쪽 참조)
- 올해 초에 제일회장단은 세 종류의 새로운 교회 잡지 출판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성인을 위한 잡지, 청소년을 위한 잡지, 어린이를 위한 잡지가 각각 출판됩니다. 이 잡지들은 수십 개의 언어로 출판되어 전 세계 후기 성도에게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잡지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 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전 세계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쪽 참조)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리아호나』 편집진 올림

목차

- 5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 ☺
- 6 새로운 세 종류의 잡지를 고대하며
『리아호나』가 내년부터 새로워진다!
- 8 성역의 원리
성탄절에 구주의 빛을 나누기
성탄 절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수 있다.
- 12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이번 성탄 절기에는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18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십시오
리처드 나이젤 홀자펠 장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성역을 행하는 법.
- 24 더 가까이 다가가라,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베키 보던과 베닛 보던
구주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신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28 선물을 받으십시오
제이컵 알 존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네 가지 방법.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프랑스에서 난민과 노숙자 도운 일, 감옥에서 응답받은 기도를 기억하다,
십일조를 내겠다는 선택, 슬픈 영적인 느낌을 받음.
- 36 와서 나를 따르라: 몰몬경 📖 ☺
이번 달에 몰몬경을 공부할 때 이 주간 기사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 40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복음에 관한 토론을 딱딱하게 격식을 갖춰서 할 필요는 없다.

🕒 짧은 기사

📖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
마티아스 스투머,
BRIDGEMAN IMAGES

섹션

청년 성인

42

소셜 미디어의 악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인 매체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청소년

50

실망했지만 그 후 성탄 절기에 축복을 받음, 여러 청소년이 그들이 받은 영적인 선물을 나눈다, 사람이 만든 빛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모로나이의 경험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움.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선물에 대해 배워 보자.



12월 온라인 전용 기사



십일조가 가져다주는 미묘한 축복 김벌리 젠슨

많은 경우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은 작지만 강력하다.



그리스도와 이어짐으로써 외로움과 맞서 싸우기

카일리 패리스

한 청년 성인이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는 이 시기에 구주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면 새해에는 이렇게 해 보자!

애널리스 가디너

한 청년 성인이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2020년 12월호 제57권, 제12호
리아호나 1672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케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릿 더블유 쿡, 율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핑크
고문: 베키 크레이븐, 쉘런 윙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드 에프 곤잘레스, 래리 에스 캐처, 쟈 이 뉴먼, 아드리안 오초아,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에디시 시 디발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닉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젠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피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셉루, 로리 폴러 소사, 차켈 위들레이, 머리스 위디슨
편집 인턴: 몰리 홀트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알레나 레기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헤일리 와그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암온 해리스
제작팀: 아이라 클렌 어데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머리스 엠 스티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57호, 제57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재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10,700원, 권당 가격은 1,1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 ### 추가 정보
-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에서
- 최신호 리아호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한국어 앱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질문과 피드백이 있다면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미어, 사모이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

다

음은 이번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주시는 빛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이다.



아기 예수 동영상을 공유한다

- 소셜 미디어에 동영상을 공유한다.
-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동영상을 보여준다.
- 버스를 함께 탄 사람에게 동영상을 소개한다.
- 가정의 밤 공과에 동영상을 활용한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방문한다

- 위생용품 꾸러미를 만든다.
- 아픈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본다.
-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 먹거리 나눔터에 음식을 기부한다.
- 식사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가져다준다.
- 성탄절 저녁 식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

외로운 사람을 위로한다

- 모임 중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함께 앉는다.
-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방문한다.
- 외로운 사람들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한다.
- 새로운 친구를 사귈다.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한다

-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
- 12월 20일에 있을 성탄절 특별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 직접 만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초대한다.
- 성탄절 활동에 친구들을 초대한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면, 이번 달 온라인 전용 기사 중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2가지)”를 읽어 본다.



새로운 세 종류의 잡지를 고대하며

교회 잡지의 변화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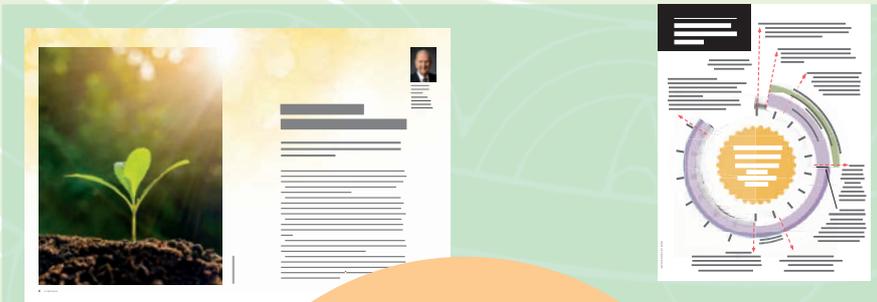
『리아호나』 잡지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되는 신성한 나침반처럼(앨마서 37:38~45 참조), 독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교회 출판물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변화의 일환으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달부터 교회는 성인을 위한 『리아호나』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친구들』까지 총 세 종류의 새로운 잡지를 전 세계적으로 발간한다. 이 잡지들은 언어에 따라 매월 혹은 격월로 만나 볼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리아호나』를 구독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구독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리아호나』를 받아 볼 수 있다.

『친구들』 또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를 받아 보고 싶은 가족은 현지 배부 센터나 stor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와드와 지부는 부모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잡지 구독권을 제공할 것을 권고받는다.

각 잡지에 실릴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잡지들이 어떻게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성인을 위한 『리아호나』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충실한 회원들이 나누는 삶의 경험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

새로운 회원을 위한 기초 복음 원리

지역의 소식과 특집 기사를 담은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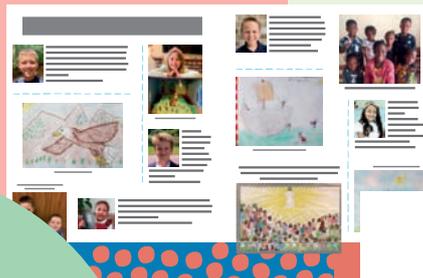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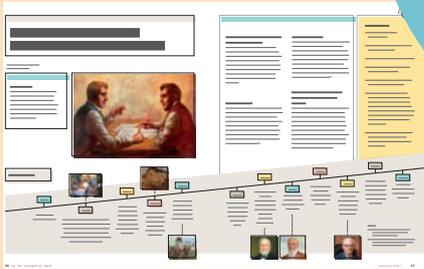




새로운 청소년 잡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번 호 50쪽을 참고한다.

십 대를 위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가정의 밤 실물 공과
청소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미디어, 표준, 친구 및 기타 관련 주제에 관한 기사



어린이를 위한 『친구들』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활동
어린이들이 쓴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기사들
어린이 예술 작품



Stor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인쇄된 잡지를 구독하거나 잡지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다. 잡지의 디지털 버전은 복음 자료실 앱 또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읽을 수 있다.

리아호나 그림: 베스 후터커





성탄절에 구주의 빛을 나누기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들을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일 년 내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을 기념하는 시기이다. 그 선물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우리도 성탄절에 성역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선물을 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나는 여전히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긴다

수전 하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가 열한 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디즈 형제님은 반원들에게 신앙개조를 모두

암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 표준 경전 한 벌을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디즈 형제님과 자매님은 막 새살림을 시작한 젊은 부부였다. 디즈 형제님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 줄 형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분이 신앙개조를 암기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 권유를 받아들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야 열세 개의 신앙개조를 다 외웠고, 형제님이 하셨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돌아온 성탄절, 나는 내 이름이 적힌 꾸러미를 하나 받았다. 꾸러미를 풀자 거기에는 경전을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격려가 담긴 카드와 내 몫의 경전이 들어 있었다. 그때는 1972년이었고, 나는 지금도 그 경전을 가지고 있다. 그 경전은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 사진: 빌리 베이트리스 신델만 크리스티아



소중하다.

그 선물에 들어간 비용 때문이 아니라 형제님이 나에게 보여 주신 친절과 나를 위해 가까이 치르셨던 희생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깊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분이 내 삶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며 디즈 형제님이 보여 주신 성역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함께하자는 초대

리처드 엠 롬니, 미국 유타주

와 드 성탄절 활동 모임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저활동 회원을 방문해서 그 저활동 회원이 성탄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라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좀 긴장이 되었다. 일찍이 대련이 와드 활동에 참여했을 때, 나는 그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이마에 모터사이클용 머리띠를 하고 있었고, 흰머리는 길게 길러 하나로 묶었으며 얼굴에는 흰 수염이,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이제 나는 성탄절 모임 준비 위원회의 위원 한 명과 함께 대련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며 그의 집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거기에 온 이유를 말했다. 그는 “아,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말 일을 잘했고, 많은 사람에게 그 활동이 뜻깊은 일이 되는 데 일조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나는 내 성역 동반자와 함께 대련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우리와 만났을 때마다 그는 늘 반가워했고,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와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를 초대하라는 영감이 와서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았던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성탄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함

여러분은 특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성역 대상자를 생각하고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때로 크게 도움이 된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와 같은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적절한 경우 그들의 축하 행사에 동참한다. 성탄절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3.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그분의 아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갈 방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한다.
4. 종종 간단한 선물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멋지고 대단한 선물을 받아야지만 정을 느끼는 건 아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진이나 기억을 나누는 것, 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이 될 수 있다.
5. 간증이라는 선물을 준다. 성역 대상자에게 구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나누고 싶다고 제안한다.

“세상을 비추라”를 활용하여 성역을 행함

성역을 행할 때, “세상을 비추라”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이다. (ComeuntoChrist.org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본다.)

1. **아키 예수 동영상**을 공유한다.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동영상을 시청한다.
2. 사람들에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권유한다.
3.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기부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나 지역 자선 단체에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운영하는 기부 자판기(자판기 형태의 장치로 물품을 구매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이 기부됨-웁긴이)가 있다면, 기부하러 갈 때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기부 자판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선물을 보낼 수 있다.
4. **일일 봉사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다. 여러분은 알림 서비스(매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영감을 주는 내용이나 제언을 보내는 교회 알림 서비스-웁긴이)에 다른 사람들도 가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함께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5. 그들의 가정을 평화로 가득 채운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성탄절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 준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줄 것이다.
6. 그들에게 “세상을 비추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을 ComeuntoChrist.org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두에게 성역을 행함

회원들은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필요 사항이 있다. 어떤 이들은 더 큰 활동을 조직하는 데서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작고 단순한 것에서 유익을 얻는다.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관계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방법을 강구한다.

- 프랑스 파리에 있는 3개 스테이크 소속 회원들은 장기자랑과 패션쇼가 포함된 “세상을 비추라” 모임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난민과 노숙자들에게 줄 물품들을 준비했다. (“파리에서 세상을 비추다”, 32쪽 참조)
-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중앙 스테이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전 세계의 성탄절” 행사를 열고 음식, 전 세계의 성탄절 전통과 관련된 전시, 음악, 봉사 프로젝트, 어린이들의 성탄절 성극 등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활동 모임을 진행했다.

- 플로리다 베로 비치 스테이크 회원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는 지역 사회의 행사에 참여했다. 지역 자선 단체에 장난감을 기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하고, 여러 교회가 교회에 관한 정보를 전시하는 부스를 열었다.
- 플로리다 잭슨빌 남 스테이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세상의 구주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



구주께 더 가까이

“[우리가] ‘한밤중에 오신 하나님이 마른 풀 위에 누워 계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간다고 상상해 보면, 우리는 구주가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40-41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이번 성탄 절기에는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움과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월에는 성탄절과 더불어 12월 23일에 태어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업적을 다시금 숙고해 볼 수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끊임 없는 반대와 박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이루어 낸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를 드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는 모두 배도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성공할 운명을 지닌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합당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모습을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선지자만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잘 배운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교리와 성약 3:7~8 참조)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매우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그 일들을 해냈으며, 우리는 모두 수혜자들입니다.

몰몬경의 번역과 출판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대업의 성공을 위한 신호탄이자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셉은 몰몬경과 자신이 받은 시현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와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을 현 시대에 밝혀 주었습니다.

특히 이 절기를 맞아, 우리는 그 선지자가 구주와 맺은 개인적인 관계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눈] 간증 ... 곧 그는 살아 계시다!”라는 간증을 기억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76:22)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조셉의 이 간증을 생각하면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겻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또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¹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교회 회원으로 지내 왔던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저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비를
제정하셨으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 저에게 구주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 회원이 우리의 교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먼저 죽음이라는 작은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죽음이 최후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선한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구주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주

없이도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나요?” 오늘날 세상의 꽤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저 사물을 다스리신다고만 여깁니다.

이런 철학은 고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허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머리를 들고 기뻐해도 좋으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엘마서 1:4)

여러분은 실로 비극적인 존재 중 가장 비극적인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구원에 대해 펼친 접근법이 니허의 교리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야 14:12; 또한 교리와 성약 76:25~27

참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루시퍼는 “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모세서 4:1~2)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고 루시퍼가 그것을 약간 수정해서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루시퍼의 제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할 기회를 말살하여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의 계획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아들딸들, 즉 우리 모두를 본질적으로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쫓겨 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강조체 추가)

반면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꼭 필요한 필멸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필멸의 경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쓴 것을 [맛봄으로써] …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모세서 6:55), 단순히 “행함을 받”기보다는(니파이후서 2:13)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배우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악을 이기고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려는 소망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더불어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하기 위한 능력과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선택에는 율법, 즉 예측 가능한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 또는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반대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행동에 대해 정해진 결과가 없다면, 사람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고 선택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율법과 공의

엘마는 공의를 율법의 동의어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운용인]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나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시리라.”(엘마서 42:13) 하나님의 권능은 율법,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선택의지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당신께서 지키고 사용하시는 확고하고 불변하는 율법 체계인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² 이 공의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근간이며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또한 율법으로 보전되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며, 성결하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4) 그러나 우리 중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율법으로 다스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나 공의가 우리를 보전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니파이후서 2:5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속죄를 통해 우리를 위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이시며,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돕고 보존하기 위해 율법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고자 함이라. ...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고, 형벌 [혹은 결과가] 부가되었으며, 회개가 주어졌나니, 이 회개를 자비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가 피조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집행하나니, 율법은 형벌을 가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엘마서 42:15, 22~23)

물론, 여기서 뉘우치는 자는 회개함으로써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³ 다시 말해서, 회개란 용서라는 은혜로운 은사를 주장하는 행위이며, 용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랑하는 당신 아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 그리고 다른 모든 불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잡힙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사라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좋으실 대로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독단적인 동시에 공의로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롭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승영은 반드시 불변하는 율법인 공의를 옹호하고 공의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구주를 주심으로써 공의를 옹호하고 공의에 순응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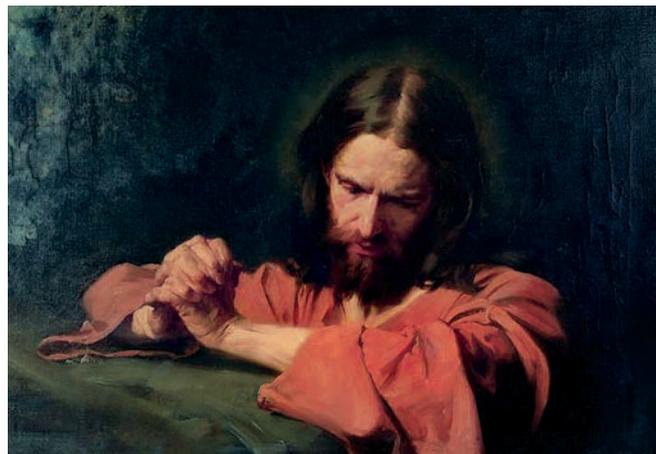
천국 회의에서 루시퍼가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고 자청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거나 죽거나 자신의 피를 흘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의가 구현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율법이 되기를 구했습니다.⁴ 저는 루시퍼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라고(모세서 4:1) 했을 때, 그 권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해 “제게 통치할 권리를 주소서”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든 그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율법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는 최고의 존재가 될 테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아무도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불변의 공의와 자비가 둘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를 강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들어 올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만물 위에 있”고 “모든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2:20)

바로 이 영적인 장자께서 기꺼이 육신을 입은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참혹하게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공의와 자비를 완벽히 아우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 중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힐라맨서 5:10~11 참조; 또한 마태복음 1:21 참조)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타락, 즉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 사망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분은 불멸과 영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이사야 53:4~5)

영적인 장자이신 그분은 기꺼이 육신을 입은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도, 여러 근심거리가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설 틈도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수도 있고, 조용히 상고해 볼 시간이 없을 수도, 또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면을 바라보며 분별해 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당장 완벽해져야 한다"라거나 "삶은 당연히 행복과 성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오해를 버리고, 이 성탄절기에 "소음"을 줄이고,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최소한 한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움과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⁵ 그 시간이 확신을 얻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성탄절기를 맞아 이러한 말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후에 뒤따른 사건들을 대략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분의 탄생은 그분이 우리를 더 잘 구원할 수 있도록 고초를 겪으며 경험하신 일들로 인해 한없이 중요한데,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과 부활로 귀결됩니다.(앨마서 7:11~12 참조)

[그렇지만] 이맘때는 단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마음에 두[지] ... [마]십시오. 조용하고 평안한 순간을 택해 그분 생애의 시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하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만, 그분께는 지상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느긋한 자세로 편안하게 마음속에 이 어린 아기를 그려 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생애나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 마십시오. 그 대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라고 전하는 소식에 온 하늘이 기뻐했던,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평온한 순간을 되새길 평화스러운 시간을 가지십시오."⁶ ■

2017년 12월 12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 "A Message at Christmas(성탄절 메시지)"에서 발췌함.

주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2016), 318쪽, 번역 수정.
-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졌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 그러한 조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8~39) 하나님은 가장 높은 왕국의 율법을 지키시며 그 율법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만물을 이해하시며, 만물은 그의 앞에 있고, 만물은 그를 둘러 있으며,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시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하여 있으니, 그는 곧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시[다]." (교리와 성약 88:41)
-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모사이야서 26:30)
-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기하는 것은 [곧 율법에 불순종하는 상태라] 율법으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5)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 319쪽.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평안하라", 『리아호나』, 2015년 12월호, 36쪽.





리처드 나이첼
홀자펠 장로
지역 칠십인, 유타
지역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는 일이 회원 선교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¹ 한층 더 훌륭한 이 방식은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법과 이유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더욱 향상된 접근법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하십시오. 그런 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돕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도움을 줄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들만 선택된 자들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²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성역을 행하라는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의 요청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진: GETTY IMAGES

성역은 구주와 같은 마음과 연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헌신하고 돌이키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발전하여 사랑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행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역을 행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역 대상자인) 개인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법을 배움

우리는 형제 및 자매 성역자가 되는 방법을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실수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실수 중 하나는 성역 임무 지명을 단지 친구인 “척”하거나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맺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이지도, 자연스럽게도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형제 및 자매 성역자인 우리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어떤 사람도 이 일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연재해가 미국을 강타할 때, 적십자와 주 방위군은 최대한 많은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하고 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합니다. 임무 지명을 받는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쏟는 시간과 사랑이라는 은사의 자발적인 성격이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재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임무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한 봉사의 수혜자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러 왔다는 사실에 감사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놓으신 주변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눈이 필요합니다.





주 방위군이나 적십자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약을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원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성역을 행하는 능력 면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종종 실패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말하기를 배우고, 자전거나 악기, 운동을 배운 것처럼 성역은 곧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성역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개인의 성역 임무 지명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놓으신 주변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의 “성역”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와서 보”거나 “와서 돕도록” 권유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풍요 땅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제3니파이 17:4)

우리처럼 구주께서도 가실 곳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시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제3니파이 17:5~6; 강조체 추가)³

비록 가실 곳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구주께서는 보는 눈과 느끼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제3니파이 17:7)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약속에 가기 전에 시간을 내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구주께는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미 하려고 했던 일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이미 가려고 했던 행사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과정을 듣고 있다면, 이웃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해 보십시오. 워드 활동에 갈 계획이라면, 직장 동료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해 보십시오. 이미 가족 경전 공부나 가정의 밤을 하고 있다면,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해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쁜 일정에 활동 하나를 더 추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성역을 맡기심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이 저를 프로보 유타 청년 독신 성인 제1스테이크 회장으로 성별하셨을 때, 그분은 제게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도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지도자와 회원들의 집과 아파트를 방문하십시오!” 그게 전부였고, 다른 훈련이나 임무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감독님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이를 뒤인 화요일부터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에서 성역을 행하는 동안 우리는 실수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또는 ‘더 나은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인 케빈 제이 워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속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온전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로 삼는 새로운 종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테이크 지도자들과 회원들, 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역을 행하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을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은, 제 보좌인 제이 비 호스 형제님과 함께 아파트 건물 사이로 걸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인사를 했으며, 그가 스테이크 지역 밖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귀환 선교사이며 자신의 신앙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스 형제님은 사람들과 쉽게 공감대를 쌓는 유능한 교사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게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청년의 눈에서 한동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빛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스 형제님이 그 청년과 그의 질문과 걱정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민을 보이자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호스 형제님의 “심정[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 청년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새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나면 방문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전에 도울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제게 인사해 주신 것이 오늘 저를 위해 해 주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성역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 청년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날 저녁 성역을 행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그 청년을 보고 그에게 성역을 행하리라고 신뢰하셨으므로 그를 우리 앞길에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휴대 전화에서 눈을 들어 낯선 이에게 웃음짓거나 시장, 학교, 직장, 교회 등 어느 곳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지닐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어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놓으실 것입니다.



성역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

제3니파이에 나오는 구주의 모범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성역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다음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무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 있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더라.”(제3니파이 17:9~10; 강조체 추가)

자신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데려온 저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도 구주의 발치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겼다는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정서적 영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방법으로 “와서 보고”, “와서 돕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처 역시 치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6쪽.
2.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17쪽, 번역 수정.
3. 누가복음 7:11~16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의 과부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역을 행하신 것도 참조한다.
4. Kevin J Worthen, “Successfully Failing: Pursuing Our Quest for Perfec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6, 2015), 3, speeches.byu.edu



더 가까이 다가가라,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구주의 모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베키 보든과 베넷 보든

우

리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지닌 교회 회원으로, 교회 회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모색할지 알기 위해 자주 구주의 모범에 의지한다. 어느 날,

우리는 구주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생각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구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주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보이셨을까?

우리는 시간을 내어 신약전서를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구주께서 지상 성역 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신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동성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특히 더 알고 싶었다. 다음은 우리가 발견한 몇 가지 패턴이다.

예수님은 문화적 차이를 친절로 대하셨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구주께서 사시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깊이 뿌리 내린 역사와 문화적 신념에서 유래한 오래된 문제들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여행하셨는데, 그곳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반목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하는 지역이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정치 및 종교적인 면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 반응하는 듯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자신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말이다.(요한복음 4장 참조) 이에 대응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대하셨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녀와 대화하신 예수님의 대응은 우리 각자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다. 대적의 일반적인 전략은 우리를 다른 진영으로 갈라놓고 서로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사무엘상 16:7)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쉽게 적용된다. 교회 모임과 활동을 비롯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정치적 혹은 문화적인 면에서 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늘 부모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닌 공통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미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쟁의 아버지 악마 ...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제3니파이 11:29) 백성들은 그들의 말씀을 따랐고, 다음 세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제4니파이 1:3)

예수님은 떠나는 대신 다가가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통 경멸당하고 배척당했던 이들에게 거리를 둘 변명을 찾는 대신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적극 노력하셨다.

한 예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신 일이 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으므로, 해야 할 일을 제한하는 종교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는 대신 즉시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마태복음 12:12)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그가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마태복음 12:13)

비슷한 이야기가 경전 곳곳에서 반복된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인을 연민으로 받아들여 주셨고(누가복음 8장 참조), 환청을 듣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을 받기며 고쳐 주셨으며(마가복음 5장

참조), 남들에게 부당한 판단을 받는 사람을 낮게 해 주셨다.(요한복음 9:1~7 참조) 우리가 경전에서 발견한 한 가지 패턴은 이것이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는(마태복음 8:3) 대부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아마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권유는 이것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를 방문한 사람 옆에 앉는가?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교회 복도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우리는 웃음 띤 얼굴로 인사를 하고, 그들을 더 잘 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친절한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안과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영적 관계를 어떻게 더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류하려고 노력할 때, 특히 우리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함께하자고 권하셨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함께 하셨는지를 알고 감명을 받았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다.

한 예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는 “세리”로,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정부를 대리하는 사람이었다.(누가복음 5:27; 경전 안에서 “세리” 참조)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소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평하며 이렇게 물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누가복음 5:30~31)

이것은 구주께서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예시다. 오히려 그분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더 알아보기

교회에는 복음의 관점에서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가 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생활”로 가서 “삶을 위한 도움”을 선택한다.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그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던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전무하다.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권고의 앞부분에 충분히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며(요한복음 13:34 참조),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8:22 참조) 다른 사람의 죄를 식별하고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쓰는 대신,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쓸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라는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로마서 3:23)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진심 어린 친절, 진실한 우정,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담긴 대화로 우리의 식탁을 둘러싸도록 하자.

시온 건설

올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회복을 선언하신 첫번째 시현 200주년을 기념해 왔다. 내년에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곳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 건설을 도운 초기 성도들의 모범을 배울 것이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초기 성도들은 이전에 믿었던 종교적인 신념도 다르고 사회 경제적 배경도 다 달랐지만, 함께 일하며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구주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며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이디서 12:27 참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우리가 치유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앨마서 7:11~12 참조) 그분은 우리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교리와 성약 49편 25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시온에서 번성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여전히 약속하신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성전에 간다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이컵 알 존스

어느 11월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들이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 자기 침실을 아주 멋지게 장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성탄절 트리, 반짝이는 화환, 줄 전구, 종이로 만든 눈송이가 방안 구석구석과 침대, 벽,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통나무, 조명, 양말이 직접 만든 벽난로와 어우러져 이 모든 장식을 완성해 주고 있었다. 이런 멋진 성탄절 풍경이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장면 중 하나는 선지자 니파이가 묘사한 것이다. 니파이의 아버지인 리하이는 자신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준 열매 달린 아름다운 나무에 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니파이전서 8:12 참조) 니파이는 아버지가 설명하신 그 나무를 자기도 보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시현을 보게 되었다. 나는 니파이가 기록한 그 경험을 아름다운 성탄절 이야기로 느낀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를 본 후에 영께 이르되,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무를 내게 보여주셨음을 내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

...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니 ...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9~11, 13, 18, 20~21)

니파이가 나무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에게 첫 번째로 보여진 것이 성탄 장면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에 영은 니파이에게 나무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니파이는 이 영감 어린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이이다.”

영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니파이전서 11:22~23)

이 경험을 통해 니파이는 우리 영혼이 가장 바랄 만한 것과 우리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임을 배웠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이 성탄절 기간에도 그러하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1.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이 한다. 시현에서 리하이 는 나무로 이끄는 “쇠막대”(니파이전서 8:19)를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막대를 붙잡고 계속 굳게 잡은 채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까지 앞으로 밀고 나아갔다.(니파이전서 8:30 참조) 니파이는 이 막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다.(니파이전서 11:25 참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할 수 있다. 부담될 만한 결심을 할 필요는 없다. 친구들이 나에게 경전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고 물을 때면 나는 보통 “영을 느낄 때까지 읽어 봐. 그렇게 하면 아마 계속 읽고 싶어질 거야.”라고 대답한다. 몇 분, 몇 절, 몇 장을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면서 영과 함께하는 경험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 하나까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12월 학습 내용 중에는 모로나이서와 함께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로나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과 성찬 축복문을 공부하는 것만큼 경전 공부에 꼭 빠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또한 우리는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읽거나 복음 자료실 앱에서 말씀을 들으며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다. 리하이의 꿈에 나온 쇠막대가 그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학습을 새롭게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봉사한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청소년 시절의 성탄절 추억은 아마 우리 가족이 고모와 삼촌, 사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옷과 음식, 장난감, 안경, 가전제품을 기부했던 일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대가족이 함께 움직여 이웃의 가정에 성탄절을 선사해 주었던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감정은 성탄절이 끝나고도 오래 지속되었고, 그 가정의 어머니와 네 자녀가 내비친 감사의 표현은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가족을 위해 봉사한 덕분에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 내”릴 수 있었다.(니파이전서 11:22)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대단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와드나 지역 사회에는 언제 어느 때든 외롭고, 불안하고, 시련에 기진맥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통의 전화, 사려 깊은 문자 메시지, 친절한 짧은 편지, 손수 만든 간식, 함께 하는 동네 산책 혹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내미는 손길이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보낸 기적이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제가 도울 사람이 있나요?”라고 여쭙본다면 어떤 이름이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속삭임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세상을 비추라” 캠페인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간단한 봉사 방법을 알려 준다. 만약 영이 이번 성탄절에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선물을 받으라고 속삭인다면, 세상을 비추라 캠페인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ComeuntoChrist.org를 참고한다.)

3. 회개한다

세 번째 권유는 구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다. 칠십인 정원회의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회개는 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겪어 나가게 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¹

삶은 어렵다.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며, 그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속의 권능이 필요하다. 구주께서 우리의 죄가 가져온 형벌을 경험할 것을 기꺼이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마느냐 하는 우리의 선택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시어다.”(제3니파이 9:22)

나는 우리 모두가 영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속삭이는 죄의 짐을 크든 작든 얼마간 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주께서는 친절하고 용서하시는 성품을 지니고 계시며, 그런 비슷한 감정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신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당신께 오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될 수 있다.

4. 주님의 집을 방문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중 다수는 그분의 성스러운 성전 안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나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인도를 받기 위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평안을 느끼기 위해 그곳에 갔다. 성전 안에서는 하늘에 좀 더 다가가기 쉽고 계시가 더 순조롭게 내게 전해지는 듯하다.

주님께서 성전 의식 등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교리와 성약 84:20)

성전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삶에 임하는 평안과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성전을 방문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느낌보다 뛰어난 차원의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²

여러분이 평안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면, 이번 성탄절을 성전이 다시 열리는 대로 참석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는 시작점으로 삼아 보는 것은 어떻게?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조상이 성전의 축복을 받도록 그들의 이름을 찾고 제출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봉사, 회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을 받을 기회가 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각자가 영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주

1. 린 지 로빈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22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1쪽.

파리에서 세상을 비추다

조젯 랄라우스, 프랑스 일드프랑스

나는 봉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과 작은 행동이 각 개인을 놀라운 방식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는 길거리의 노숙자와 공원에서 잠을 자는 난민들 때문에 도움의 필요성을 일상처럼 목격하는 곳이다. 이는 성탄절 기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가능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Solidarity to Act Together [함께 행동하는 연대]라는 지역 사회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파리에 있는 세 개 스테이크 후기 성도들과 지역 사회 여러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세상을 비추라' 활동을 계획했다.

우리는 삼 년 연속 '세상을 비추라' 연말 행사를 개최했다. 파리에 있는 여러 교회와 조직에서 예술가, 자원봉사자, 방문자들이 우리의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기부했다. 준비하는 데 여러 달이 걸렸지만, 자원봉사자와 공연 참가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며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 그 누구도 이 행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열린 '세상을 비추라' 행사에는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는데도 82명이 참석했다.

행사 전에 우리는 파리 지역의

난민과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위생용품으로 꾸러진 배낭을 준비하고 모았다. 그 외에도 담요와 침대 시트, 베개, 운동 기구, 샤워용 샌들, 그리고 자전거도 한 대 모았으며, 그것들을 모두 난민들에게 전달했다.

작년에는 패션쇼도 열었다. 그때 패션쇼에 참여한 22세의 한 디자이너는 자신이 받은 지원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믿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내년 행사를 고대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관과 큰 규모의 국제 출장 음식 업체와 협력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창고와 냉장 화물차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프랑스어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고결한 가치를 위해 행하는 봉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행동은 각 개인을 놀라운 방식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우리를 향한 미소와 감사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

감옥에서 느낀 기도의 힘

포사 라우더, 미국 유타주

나는 그 성탄절 전야를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나는 부동산 사기죄로 4년 반 동안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여성은 조용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방 건너편 감방에 열 명의 여성이 이감되어 왔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깔깔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곤 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 방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한테 가서 말을 좀 해 보라고 부탁했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대개 그런 이야기는 잘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리던 중에 문득 내가 이웃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나는 그들의 감방으로 가서 말을 건넸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 그 일 이후로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듯했다.

성탄절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즈음, 그들은 성탄절 전야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나를 초대했다. 우리는 각자가 겪었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계획했다. 성탄절 전야에 우리는 함께 모여 종이로 성탄 장식을 몇 개 만들어 걸었다. 트리는 없었지만 모두들 평화로운 영을 느꼈다. 참치와 감자칩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자신이 겪었던 영적인 경험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믿는 종교도 다 다르고 저마다 이야기도 가지각색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었다. 그날 그곳에는 영이 임재해 있었다.

에이프릴은 열네 살 때 어머니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에이프릴은 노숙 생활을 하다 열다섯 살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냈다. 그리고 에이프릴은 마약 중독으로 갖은 고생을 하고 마약 거래에 손을 댔다가 결국에는 교도소로 오게 되었다.

에이프릴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왜 살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을 텐데. 내가

교도소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이프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기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여쭙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에이프릴은 교도소의 한 상담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받게 되었다. 그것은 에이프릴이 입양 보냈던 아이가 보낸 것이었다.

상담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시는가 보네요.”라고 말했다.

에이프릴은 이렇게 말했다. “요새 저는 딸아이에게 편지를 써요. 한번은 그 애가 면회도 왔었죠. 저는 종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요.”

에이프릴의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는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만난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우리 구주의 사랑과 자비를 더 충만히 느낄 수 있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그 성탄절 전야는 정말 아름다웠다. ■



성탄절 선물을 살까, 십일조를 낼까?

안나 윌리엄스, 미국 앨라배마주

복음이 참되다는 것은 믿지만, 내가 십일조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찾아다니던 끝에 자매 선교사들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되었다. 나는 한 달 반 후에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다.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십일조의 원리였다.

선교사들은 내게 “십일조를 바치면 축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식료품을 사고 공과금을 내는 것도 빠듯한 생활이었다. 나는 종종 십일조를 내든지, 아니면 식료품을 사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차 할부금을 내는 데 돈을 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몇 년 동안 십일조를 내려고 노력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복음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실천해야 해. 일단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지.”

당시에 십일조로 5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청구서들을 지불하기 위해 503달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상상이 안 되었지만,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해 보자!” 나는 십일조를 냈다. 503달러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익명으로 100달러짜리 지폐 다섯 장을 우편으로 보내 왔다.

그 일은 나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경험을 한 후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십일조를 바쳤다. 그렇다고 그 일이 늘 쉬웠던 것은 아니다.

만물은 내가 몇 년 전 어느 성탄절에 십일조를 내면 자기와 동생들의 성탄절 선물을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딸은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못 받을 건 우리도 알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엄마가 십일조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랬듯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은 선물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홀어머니가 아이들을 부양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십일조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이후, 나는 축복을 받아 왔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늘 나를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신다.

나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축복을 받는다. 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의 훌륭한 모범 덕분에 나와 내 아이들은 교회에서 계속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즉, 하늘 문이 우리를 위해 열리리라는 축복이라고 말한다. ■

내년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야

리베카 클라크슨, 미국 캘리포니아주

성탄절 전야에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자 한 가지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성탄절 전야였다. 우리는 이제 막 새 잠옷을 받은 참이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성탄절 전통이었다. 아이들이 성탄절 음악을 연주하고 모두 이리저리 춤을 추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고 모두들 행복하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곧 태어날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가지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영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내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리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남편 팀과 함께 트리 아래에 선물을 놓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팀이 초저녁에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내년 성탄절 전야에는 함께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다른 주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집을 떠나기 전에, 팀은 아이들에게 여행 중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행길에서 가족 중 한 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모두가 괜찮으리라는 확신도 들었다. 우리는 여행을 하고, 행복하게 가족들을 방문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곧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태아 검진을 할 시기가 되었다. 의사가 슬픈 소식을 전했다.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검진 2주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망연자실해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날로부터 2주 전은 바로 그 성탄절 전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이 언제 태아의 몸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팀과 나는 우리 아기가 모두들 이리저리 춤을 추고 행복해하던 성탄절 전야에 잠시나마 우리 가족과 함께했다고 느낀다. 우리는 무척 즐거웠고, 아기도 우리와 함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기는 우리를 떠났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믿는다. 비록 내년 성탄절 전야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언젠가 우리의 아기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찾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





모로나이서 1~6장
(11월 30일~12월 6일)

우리는 몰몬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모로나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다. 그는 니파이인의 최후의 멸망을 목격했고, 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으며(몰몬서 8:3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한 니파이인들은 죽임을 당했다.(모로나이서 1:2 참조) 모로나이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했다.(모로나이서 1:3) 그리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며 수년간 숨어 지냈다.

“내가 ...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모로나이서 1:4)

그 당시 모로나이는 금판에 기록하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가 “몇 가지를 더 기록하[여], 혹 이것이 주의 뜻을 좇아 장차 언젠가 [그]의 형제[들에게] ...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모로나이서 1:4)



모로나이는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

몰몬경의 신성한 목적을 알았던 모로나이는 자신이 기록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모로나이서를 읽은 후,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로나이가 이 내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로나이는 무엇이 필수적이라고 느꼈는가? 모로나이의 마지막 간증을 읽은 후 몰몬경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모로나이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모로나이는 몰몬서에 8장과 9장을 추가하고, 이더서를 요약하여 금판에 수록했으며, 몰몬의 판에 자신의 기록(모로나이서)을 더했다.

모로나이의 기록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교회의 일에 대해(모로나이서 1~6장 참조), 그리고 아버지 몰몬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모로나이서 7~9장 참조) 자신의 마지막 간증을 기록했다.(모로나이서 10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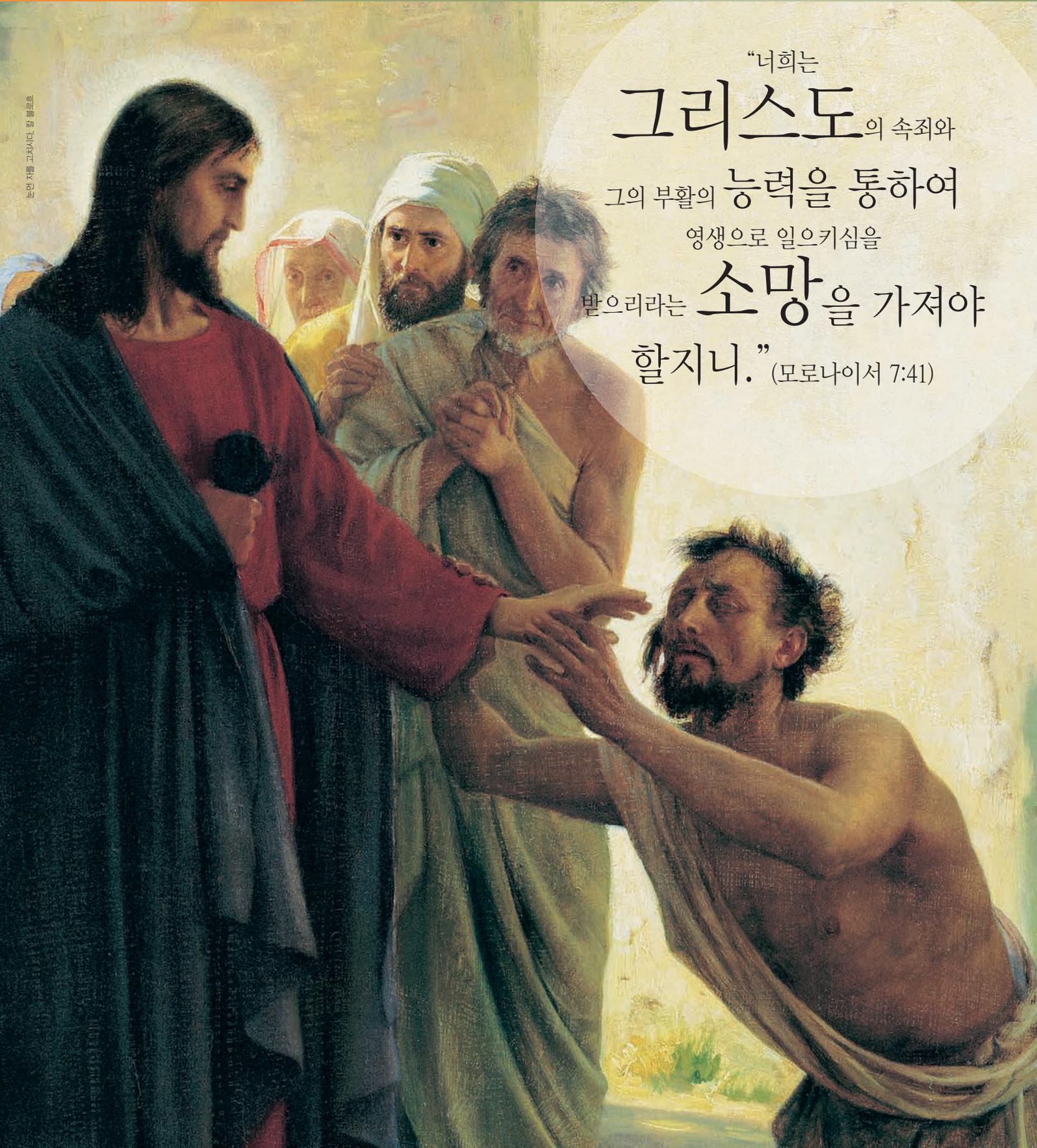




모로나이사서 7~9장
(12월 7일~13일)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모로나이사서 7:41)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모로나이사서 7:41)





모로나이서 10장
(12월 14일~20일)

나는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모로나이서 10:8 참조)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영적인 은사를 축복받았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영적인 은사는 경전에 나와 있으나(모로나이서 10:9~16; 교리와 성약 46:13~25 참조) 그렇지 않은 은사도 많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다음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질문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이 힘써 발전시켜야 할 은사는 무엇인지 기도로 여쭙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문에도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들이 나와 있을지 모른다.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상의해 본다.

연구한다

영적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경전이나 축복문 또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 은사에 대해 더 알아보는 방안도 고려해 본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다.



실천한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 배우는 것도 유용한 일이지만, 여러분은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영적인 은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본다. 이러한 은사들이 여러분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교리와 성약 46:26 참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성탄절

(12월 21일~27일)

몰몬경의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는 성탄절과 관련된 무엇을 배우는가?

다 음 성구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구주의 탄생과 관련된 무엇을 각 선지자들로부터 배우게 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가족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서기 1년경)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일은 내가 세상에 [올] … 것임이니라.”(니파이후서 1:4 ~22 참조)



니파이(주전 약 600년경)

“나는 … 한 처녀를 보았나니 …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13~33 참조)



아비아다이(주전 약 148년경)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시리라] … 하지 아니하였느냐?”(모사이야서 13:33~35 참조)



베냐민 왕(주전 124년경)

“주께서 …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모사이야서 3:5~11 참조)



엘마 이세(주전 83년경)

“그는 …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엘마서 7:7~13 참조)



레이맨인 사무엘(주전 6년경)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 오시느니라.”(힐라맨서 14:1~13 참조)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복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도움이 될 또 다른 자료들

-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친구들』 뒤표지)
- “도마뱀불이와 귀뚜라미 이야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2019년 6월호 『리아호나』)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2019년 10월호 『리아호나』)
- “어려운 주제에 관한 대화”(2015년 3월호 『리아호나』)

함께 식사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

자녀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7
가지

우리가 같이 본 그 연차
대회 말씀들에 관해
어떤 생각이 들었니?

삽화: 조시 포르텔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관한 토론을 딱딱하게 격식을
갖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복음 토론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7
가지 방법

혹시 종교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가 있니?

마음이 열려 있고,
가슴에 사랑이 있고,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언제라도

영적인 메시지와 연관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가족 이야기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봉사 활동 중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을 때

교회 모임이나 활동 전후에

최근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에서 읽은 내용 중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니?

혹시 오늘 교회에서 들은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었니?

최근에 나는 이 경전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너는 그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최근에 경전에서 어떤 것을
읽었니? 혹시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니?

요즘 부름(혹은 교회에서 맡은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의견과 조언

- **자녀에게 복음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겨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조셉 스미스가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던 것도 결국 그런 의문 덕분이었으며, 그 때문에 첫번째 시현이 일어나게 되었다.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간증을 키울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준다.
- **가정의 밤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름다운 석양을 볼 때든 언제라도 영을 느끼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영은 따뜻하고 밝은 느낌, 명확한 생각, 평안한 느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준다.
- **복음 메시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의 십 대 자녀는 휴대폰으로 교회 잡지 기사를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탁자 위에 놓인 『리아호나는 한 번 훑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시간이 날 때 연차 대화 말씀을 듣는 일은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 말씀을 틀어 놓으면 그중 일부분을 들을 수도 있다.
- **제일 중요한 점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경전에는 엘마 이세처럼 처음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녀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언젠가 자녀의 마음에 영적인 진리가 스며들 것임을 믿는다. ■

이번 호 이야기

44 (소셜 미디어에서도)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본부 청년 임원회 임원 및
『리아호나』 편집진

48 완벽한 프로필 사진 이면의 현실

바르바라 로드리게스

온라인 전용

우리의 할 일은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다

익명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되, 그 안에
간하지 않는 방법

페이스 퍼거슨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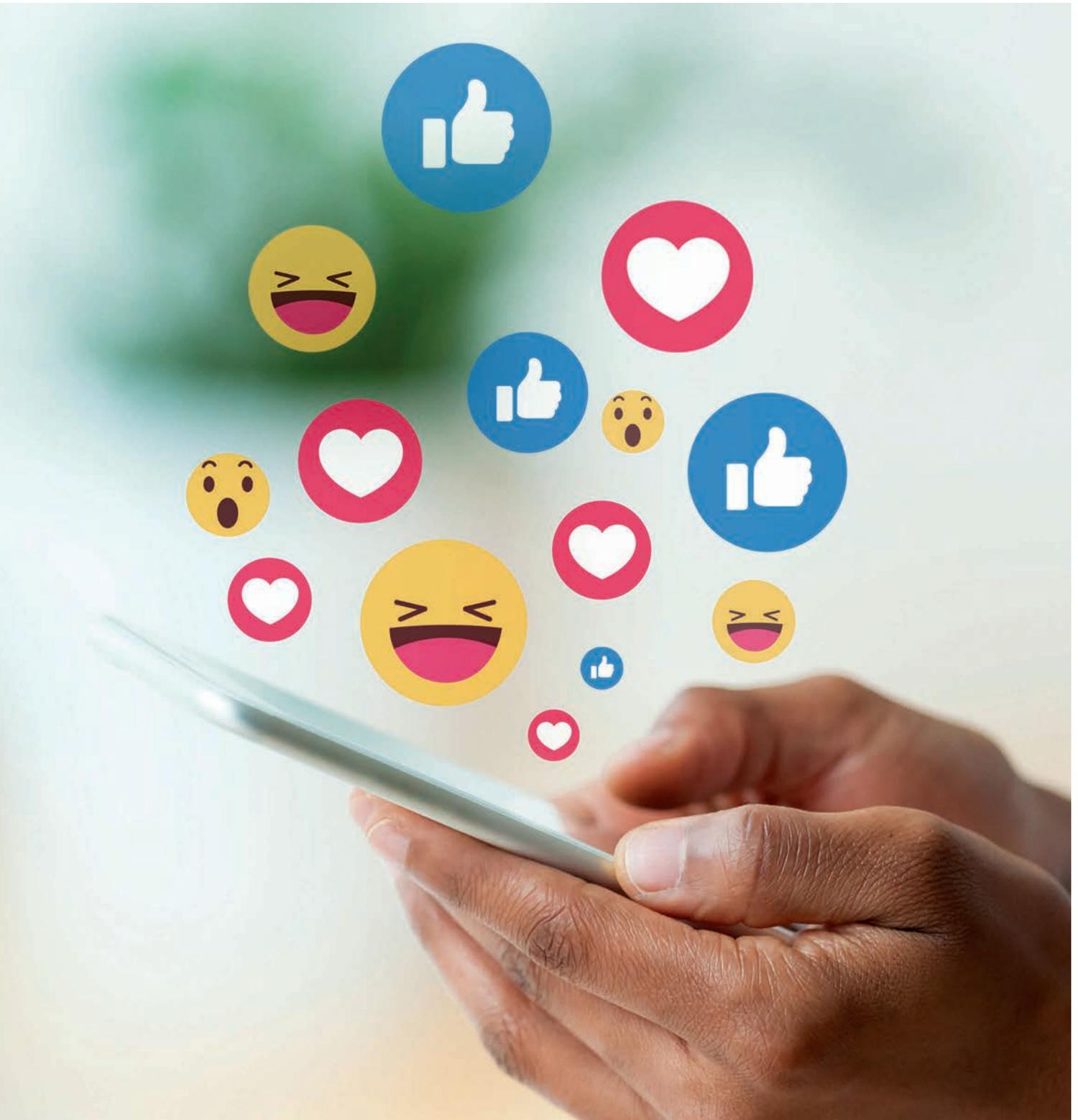
5년 전, 남편과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솔직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매개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부 구독자들로부터 영감 어린 메시지를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교회에 처음 가 보았다거나 심지어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볼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 단순히 우리의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로 우리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말 큰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멋진 경험을
선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셜 미디어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타인을 불의한 방식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 청년 성인 섹션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무언가와 비교하기 쉽습니다만,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긍정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우리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르바라 로드리게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구주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본부 청년 임원회 임원 및 『리아호나』 담당자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과 함께, 사람에게에는 타인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판단이라는
단어에 많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주의 교회 회원인 우리들은 그분의 방식대로 행해지
는, 판단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일임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남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맹렬히 비난했다. 당시 모세 율법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이 타인의 결점을 성급하게 찾다고 꾸짖으셨으며,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권고하셨다.(요한복음 7:24;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7:1~2 참조)

우리는 구주를 판단했던 그 사람들처럼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불의한 방식으로 판단하는가? 아마
생각보다 자주 그럴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에서는 타인을 판단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판단하라는 구주의 권고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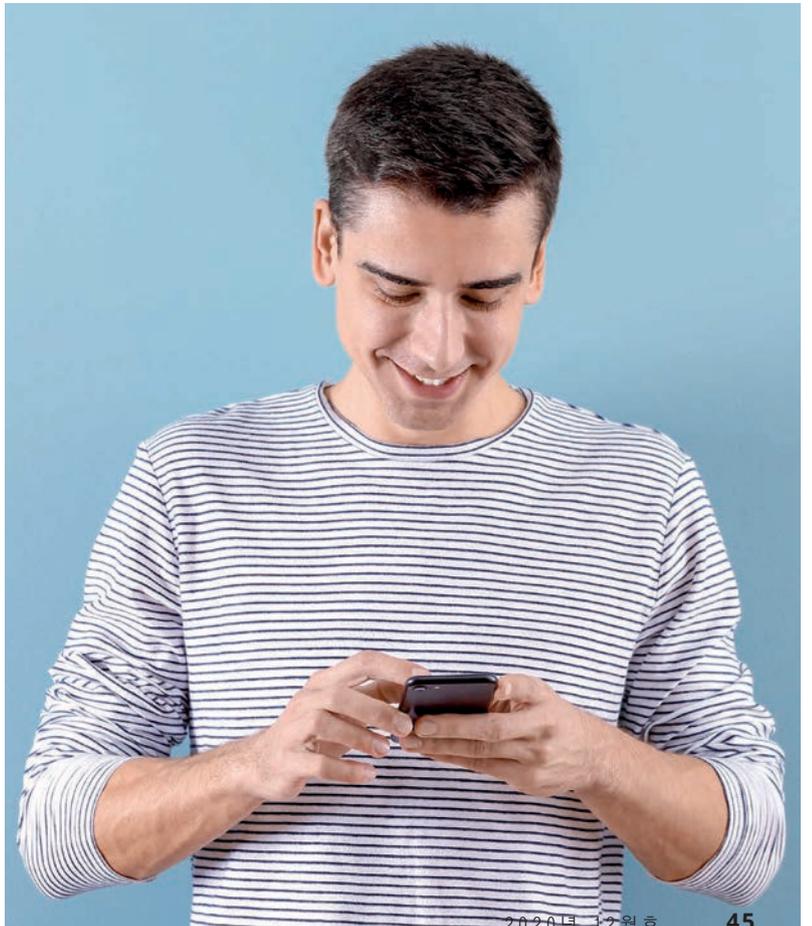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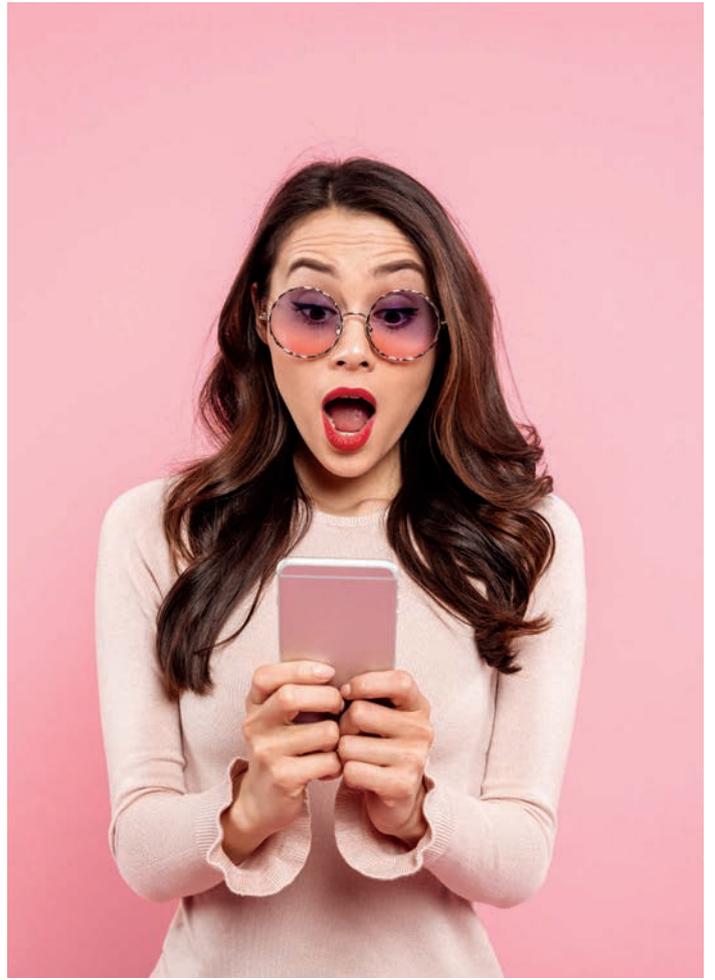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의로운 판단과 불의한 판단을 구별하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가진 선택의지의 일부분이다.
살다 보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거나, 사용할 미디어를
선택하는 등 판단력을 행사해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을 의롭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여섯 가지 지침을 주었다.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판단은 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어떤 사람이 승영을 보장받았다거나 지옥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삼간다.
2. “영의 인도를 받으며, ... 분노, 복수, 질투, 또는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
3. “자신이 맡은 직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4. “사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5. 사람보다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6. “의로운 표준을 적용”한다.¹

선지자 모로나이 또한 의롭게 판단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주었다.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모로나이서 7:12)

소셜 미디어를 보거나,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때,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게시물, 혹은 이 사람, 또는 이 활동은

- 나를 평안하고 기분 좋게 하는가?
-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가?
-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타인과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지혜롭고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불의한 판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이제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자신이 부정적인 판단의 악순환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살펴본다.

- 소셜 미디어 금식을 실행한다. 소셜 미디어 금식은 우리가 잠시 속도를 줄이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금 실질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을 소셜 미디어 바깥에서 더 자주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저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진 실제 사람임을 깨닫고 선부른 판단을 훨씬 삼가게 된다.
- 자신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도 함께 올린다. 이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눈을 돌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타인을 축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매일 소셜 미디어에 진심 어린 답글을 하나 남기기로 결정한다. 생일 축하나 다른 축하 메시지도 좋고, 그냥 친절한 말도 좋다.
- 소셜 미디어에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근사한 휴가 사진만 공유하거나,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있거나, 종종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상 있다.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본다.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아시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 그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게시물이 계속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팔로우를 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인 인상은 영원한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 모든 사람의 참된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는 것에는 분명 힘이 있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크레이크 자매님이 상기시켜 주신 다음 내용처럼 말이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게** 꼭 맞는 신성한 성품과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란 쉽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사는 듯 보이거나 우리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도록 노력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이해하고 감사히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²



결국, 소셜 미디어 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습관을 끊어 내려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에게로 눈길을 돌려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심판 및 해로운 비교를 극복하라

사탄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을 때, 자기 연민과 사랑의 감정은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생각으로 대체된다. 또한, 우리는 타인과 자기 자신, 심지어는 성신과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

사실, 비교의 대상이 항상 다른 누군가인 것은 아니다.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과 불안정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비교는 자신에 대한 불의한 판단일 수 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다.³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장점과 재능을 알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기쁨의 열쇠가 된다.

구주께서는 평생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10:38 참조) 그분은 단 하나의 결점도 없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질책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자비롭게 대처하실 수 있었으며, 그런 판단이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주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쉽게 비교와 판단의 늪에 빠져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된다. 우리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조이 디 존스 자매님의 다음 말씀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구주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약점, 의심, 나쁜 습관에 쏟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⁴

알다시피,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 (교리와 성약 18:10)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잠시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아신다. 그분의 독생자는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이 버겁고 마음속에 비교가 싹들 때면 그분들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의심과 판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비할 데 없는 자신의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주를 바라보라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 하나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은 우리가 변화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모든 일을 해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가 불의한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주신다. ■

주

1. Dallin H. Oaks, “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9-12.
2. Michelle Craig, “How Do You Feel Joy in the Lord?” Nov. 22, 2019, blog. ChurchofJesusChrist.org.
3.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이는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4. 조이 디 존스,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5쪽.



완벽한 프로필 사진 이면의 현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바르바라 로드리게스

얼 마 전,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 한 명이 내가 올린 한 사진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아이를 돌이나 키우면서 어쩔 그렇게 빛이 나세요? 저는 하나로도 벅차거든요.” 나는 바로 웃음을 터트렸고, 그 순간의 내 모습이 어떤지 사진을 찍어 보여 주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저는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제가 외모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란 그런 거죠. 우리는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전혀 빛이 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제 모습을 사진으로 올릴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과 일요일에만 웃을 차려입어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인답니다.”

나는 몇 년째 우리 가족이 사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으며, 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실생활”을 보여 주려 노력한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소셜 미디어의 미덕과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몇 가지 경험을 했다.

소셜 미디어는 모든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 내 경우에도 그렇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다 보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상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인식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후기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세심하게 고르고 골라 올린 게시물 너머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가족사진의 진실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가족사진의 뒤편에서는 대개 많은 일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왜 우리 가족사진은 저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걸까?” 하지만 우리는 그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한다.

일례로, 우리도 교회 모임이 끝나고 가족사진을 찍으려 했던 적이 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감행하기에는 버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순간들을 사진에 담아 두고 나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되돌아보는 걸 무척 좋아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나는 계속 울면서 안아 달라고 조르는 두 살배기 아들 알빈을 달래야 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제발 옷이 잘 보일 수 있게 서 있어 달라고 아이에게 애원했다.(그날 아침 전략적으로 맞춰서 입힌 옷이었다.) 세 살짜리 딸 애브릴도 서 있기가 싫었던지 남편에게 안아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진을 찍기 싫어했다.

사진 촬영은 잘 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포기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더 멋진 것을 발견했다. (사진을 찍고 있던) 남동생이 그 정신 없는 순간을 포착했던 것이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나는 둘 다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우리 옷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잘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나는 “가족사진의 진실”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 사진에 공감할 줄은 미처 몰랐지만, 이를 계기로 나는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해 보일 필요는 없음을 깨달았다. 그저 순리를 따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더 큰 교훈도 배웠다. 누군가가 완벽해 보인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의 세세한 사정을 몽땅 다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소셜 미디어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는 다방면으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보며 낙담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이 미화된 사진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현실적이 되고, 웃을 줄 알며, 덜 낙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바”란다.¹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기억할 때, 고통스러운 비교나 사적인 판단을 위한 자리는 우리 안에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잠재력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비교에 귀를 닫을 때,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게시물을 보며 근심하는 일 없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스물다섯 살인 바르바라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안소아테기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들은 현재 페루 리마에 산다. 바르바라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주

1. 게리 이 스티븐슨, “영적인 일식”,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6쪽.



더 많은

페이지와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2021년 1월에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시킬 새로운 청소년 잡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탄생합니다.

50 리아호나



새로운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립니다.

- 교회 지도자의 영감을 주는 메시지.
- 청소년들이 직접 쓴 더 많은 이야기.



이번 호 이야기



52 성탄절 전통의 축복
이사벨 토아

54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애널리스 가디너와 샘 로프그란

56 질의응답: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빛이 나는 돌?

58 그분은 빛이시다
로라 폭스

60 모로나에게서 배우는 삶의
교훈 세 가지
데이비드 덕슨, 차켈 워들레이
허버트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
게릿 더블유 공 장로

65 물론경의 인물들:
물론과 모로나

겻 습 니 다!

- 세미나리와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을 위한 보조 자료.
- 걸어 두거나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포스터.
- 복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따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읽어 보면서 지속적인 영감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통의 축복

성탄절을 새집에서 보내는 건 하등 특별할 게 없는
일이지만, 신권 축복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이사벨 토아

나는 열네 살 때 처음으로 눈이 없는 성탄절을 보냈다. 우리 가족이 미국 유타 산악 지역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보기에 텍사스는 너무 평평하고 무더운 곳이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는 친구도 없었고, 특히 땅에 눈도 없다 보니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들었다. 내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불쑥불쑥 외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마음은 한없이 울적했지만 일주일 후면 성탄절이었다. 나는 기운을 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성탄절 전통에 마음을 의지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이 함께 했던 재미있는 일들 덕분에 언제나 행복했었다. 우리 가족의 전통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방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으므로, 나는 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전통이 전통이라 불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탄절의 영이 계속 살아 있도록

성탄절이 하루하루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끼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다. 마침내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 전통이 새로운 집에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줄 어떤 사건들을 온종일 기다렸다. 물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설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것이든 성탄절의 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줄 표징을 고대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점점 더 화가 났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모두가 함께 집에 있는데도 집 안 전체가 싸늘하고 텅 빈 느낌이었다. 그러다 아빠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물으셨다.

“혹시 신권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가 성탄절 전통을 달 것인지, 명절 쿠키를 구울 것인지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성탄절 전야 밤에 늘 해 오던 아주 특별한 전통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성탄 전야에 늘 모두 신권 축복을 받았었다. 아빠에게 축복을 받을 때면 언제나 평안을 느꼈지만, 사실 모두가 그 전통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축복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종종 했다. 다들 축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나도 이 전통은 지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가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으셨다.

“저는 받고 싶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무척 놀랐지만, 아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다. 아빠는 엄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기 시작하셨다. 엄마의 감정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아빠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졌다. 아빠는 이 변화의 시기에 엄마에게 필요할 위안과 평안을 축복하셨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안에 성냥불을 켜 준 것 같았다. 그렇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느낌은 전에 내가 영을 느끼던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성신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엄마가 받은 축복의 말들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다. 내가 받은 신권 축복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아빠의 나직한 “아멘”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눈에 온가족이 모두 울고 있는 광경이 들어왔다. 우리는 부드럽게 사랑을 담아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말하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보듬으셨다. 내 머리 위에 오래도록 드리워 있던 먹구름이 마침내 햇빛에 자리를 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를 비롯해 모두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며 내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축복을 통해 나는 텍사스로 온 이후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따뜻함을 느꼈다.

신권의 힘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해에는 가족 전통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빠의 신권 축복을 통해 흐르는 것을 목격했을 때 받은 그 느낌을 항상 기억했다. 신권 축복이 어떻게 내 슬픔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었는지를 항상 기억할 것이다. 신권의 힘에 관한 소중한 교훈도 배웠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신권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단순히 갖고 싶은 선물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애널리스 가디너와 샘 로프그란
교회 잡지

올해 성탄절에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선물 상자 말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즉,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말이다. 성탄 절기에는 물질적인 욕구에 집중하기 쉬우나,
우리는 자신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필요한 선물

우리는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며, 보통 그것은 경전 공부와 기도와
같은 은사를 통해 채울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에 필요한 다른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냈던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모아 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여러분의
영에는 어떤 선물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세미나리라는 선물

칠레에 사는 16세 청년 후안 알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세미나리임을 알게 되었다.
“세미나리에서 저는 진리를 배우고, 영은 제게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라도 영을 느낄 때면,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세미나리에서 받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은 제게 중요합니다. 세미나리에 가면
제가 가진 질문이나 의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는 것도 저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선물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15세 청년 로에타 엠은 우리
교회를 알아보던 중 자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성찬식과 공과 반, 청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즉시 많은 친절할 사람들과
배려심 깊은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활동에 초대받았고, 새로 사귄 친구들은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 더 많이 배우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쌓은 뒤, 로에타는 침례를 결심했다. 로에타는 말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은
축복입니다!”



봉사라는 선물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16세 청년 줄리 에스는 자신에게 부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최근에 와드 합창단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에 반드시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제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이 부름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저는 큰 기쁨을 얻었고, 이 부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덜 서두르게 되었고, 더 계획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선물

터키에 사는 19세 청년 샘 디는 자신의 인생에서 빠져 있던 것이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 “저는 열여섯 살에 침례를 받았고, 그 후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고,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제언

친구가 필요한가?

친구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의 와드나 학교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친해진다.

책임이 필요한가?

감독님께 이야기하고 부름을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영적인 양분이 필요한가?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경전을 읽는다. 연차 대회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필요한가?

이 청소년들은 간증을 키우고,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영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는가? 그런 필요를 계속 추적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목록을 만든다.

주고받기

여러분의 영에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목표 설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 또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말은 직계 가족과 와드 또는 지부 가족들을 모두 포함한다. 모로나이 시대에도 교회 모임을 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함이었다.(모로나이서 6:5)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필요 사항을 채우고 당신을 믿는 신앙을 키우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과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영적인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추측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목표를 세워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 보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지금은 베품의 시기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필요 사항을 채우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전 세계에 있는 로에타와 샘들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행복해지고 삶의 목적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생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이에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다! ■

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표준이 되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여러분의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 표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16쪽, HopeofIsrael.
ChurchofJesusChrist.org



좋은 것들을 공유하세요

그들이 제 친구라면,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을 공유하는 게 저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도 조금씩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마테우스 티, 16세,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제 친구들은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제 친구는 저와 함께
있으면 모범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무척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에고 알, 16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더 좋은 영향을 주세요

세계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저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면 언제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합니다.

사이레 브이, 18세, 멕시코 모렐로스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의 좋은 모범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낙담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것과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타인을 위해 표준을 낮추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거니까요.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탐구하며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세상의 것 때문에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일리 이, 15세, 필리핀 마닐라

거룩한 곳에 서세요

저의 교회 지도자들은 혼자일 때에도 거룩한 곳에 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세운 표준에 따라 계속해서 생활하세요. 그들을 공과나 성찬식 모임에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복음의 빛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각자에 대한 구주의 사랑을 보여 주세요.

알라니스 오, 18세, 포르투갈 세투발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돌을 빛나게 해 주시도록 요청한 일이 조금 이상하지 않았는가?

첫째, 야렛의 형제는 “[그가] 원하는 바대로”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기도했다.(이더서 3:2)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믿었다는 뜻이다.(누가복음 1:37) 그리고 주님은 그의 충실한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둘째, 야렛의 형제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전의 사례를 따랐을 것이다. 주님은 야렛의 형제에게 배에 불이나 창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이더서 2:23~24) 그러나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에 “창”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세기 6:16) 하지만, “창”으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 창이 아닐 수도 있다. 일부 랍비들과 다른 학자들은 방주의 “창”이 방주 안에서 빛나는 귀한 돌이라고 말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야렛의 형제에게도 알려졌을 것이다. (야렛의 기록에는 창조에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이더서 1:3~4 참조]) 그러므로 야렛의 형제가 드린 요청이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영적인 속삭임을 실행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21년 1월 15일까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

그분은 별 빛 이시다

집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수조 킬로미터 거리에서 점점이
빛나는 작은 빛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로라 폭스

이 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일상적인 가정사와 상업적인 산만함으로부터 수백, 수천 킬로미터는 족히 떨어져 있을 선교 사업 중의 성탄절을 늘 고대했다.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날인 성탄절을 축하할 좋은 방법이 또 어디에 있을까?

12월의 어느 저녁, 동반자와 나는 필리핀 라왁시 외곽에 있는 아주 멋진 장소인 라파스에서 그날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우리의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삼륜 오토바이의 사이드카[오토바이 옆에 좌석을 설치하여 사람이 탈 수 있게 한 것—웁긴이] 안에서 키가 180cm인 동반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이 삶을, 그 순간을 사랑하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때리고 지나가자 (거의) 고향에 돌아온

듯 눈 내리는 성탄절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내가 익숙했던 12월의 추위만큼 춥지는 않았다.

시골 지역을 지날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빛과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의 하늘은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에 다가갈수록 눈에 보이는 별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가장 밝은 별들만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에 대해 생각했다.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과 그리스도, 즉 “광명한 새벽 별”에 대해 생각했다.(요한계시록 22:16)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밝은 별이자 빛나는 모범이시다. 그러나 삼륜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별들처럼 그리스도 역시 빛 공해 때문에 가려질 수 있다. 산만함이 많을수록,



인공조명이 많을수록 자연 상태의 빛을 보는 건 힘들어진다. 필리핀 시골에서는 마을 한가운데에서도 여러 별을 볼 수 있지만, 마닐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에 별 하나 보기도 힘들다. 광고판과 회사, 그리고 가정에서 내뿜는 빛이 먼 곳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한다.

산만함과 인공조명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

성탄절 무렵이 되면 특히 더 그렇다. 성탄절 기간에 많은 활동을 계획해 놓고는 마치 마닐라의 출퇴근 시간처럼 정신없이 지내기 일쑤다. 찾아야 할 선물, 계획해야 할 파티, 써야 할 카드, 참석해야 할 무수한 공연과 행사들. 위를 올려다볼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집과 나무에 불을 밝히느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는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 축제를 잠시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분은 빛이시다. 산만함을 최소화하고 위를 올려다본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모로나이에게서 배우는 삶의 교훈 세 가지

데이비드 덕슨과 차켈 워들레이 허버트
교회 잡지

몰 문경은 강력하고도 영원한 진리, 놀라운 약속과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한 영감 어린 본보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섬없이 보여 준다. 가장 좋은 점은 그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의 막바지에 다다라 모로나이서를 펼칠 때, 우리는 참으로 가장 힘 있는 진리와, 인생을 바꿀 만한 교훈을 보게 된다. 모로나이는 자신의 훌륭한 간증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스스로 진리를 알아보라는 개인적인 권고로 몰문경을 끝마친다. 이 놀라운 책의 마지막 장들에서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가르침 중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세 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결승선 너머를 바라본다

우리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다거나 아주 뛰어난 학교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등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을 끝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모로나이는 이더서에 나오는 야렛인의 몰락에 관한 기록을 마친 후, 자신이 몰몬경을 위해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겼다. 그는 이렇게 서문을 열었다. “이제 나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모로나이서 1:1)

아마 모로나이는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랐을 것이다. 당시 그는 외로운 떠돌이 신세였던 데다 사방에는 그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무언가를 해 볼 시간이 남아 있었다. 모로나이는 10장의 기록을 더 남김으로써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썼다. 이 장들에 기록된 몇몇 진리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 제사를 성임하는 방법, 성찬 관련 지침(기도문 포함), 교회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 그의 아버지가 신앙, 소망, 자애에 관해 전한 힘 있는 설교, 우리 각자에게 몰몬경의 참됨에 관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모로나이서 10장 3~5절의 신성한 약속. 엄청나지 않은가?

애초에 집필 계획도 없었던 이 열 개의 장에 모로나이는 이렇듯 미래에 몰몬경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 무척 중요한 진리들을 추가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모범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 다음에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열심히 일하여 이미 일이 확실히 끝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도 혹시 아직 더 기여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고 숙고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모로나이의 그 수고는 온 세상에 축복이 되었다.



2 돌 상자를 기억한다

만약 여러분이 뒤뜰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나무를 심기로 했다면, 아마 생각보다 큰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딱 좋은 철이 되었고 나무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져 있더라도, 공들여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취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온다. 그리고 흑(올리브 나무처럼) 완전히 성장하는 데 몇십 년이 걸리는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자녀나 손자녀들이 그 결실을 맛보리라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로나이의 상황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일, 아버지의 사망 이후 모로나이가 맡게 된 그

일은 가까운 미래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터였다. 10년은 물론, 천 년이 지나도 말이다. 모몬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한 것은 야곱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 또 이는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아오기 위하여 주께 감추어지게 되어 있느니라.”(몰몬서 5:12; 강조체 추가)

모로나이는 이 기록이 정확히 언제 나오게 될지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를 시현으로 보았으며 앞으로 있을 특정한 일들을 예언했다.(몰몬서 8:35 참조)

모로나이가 이 모든 작업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지금까지 기록된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들로, 모로나이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홀로 있음이라.

나의 부친과 나의 모든 친족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나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나를 살려 두실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몰몬서 8:5)

그는 온가족을, 모든 친구를 다 잃었다. 그가 속했던 문명 전체가 소멸되었다! 기록을 마쳤을 때, 모로나이는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할 성스러운 기록을 인봉하기 위해 돌 상자를 만들었다.

의로운 삶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때로 그런 변화의 잔물결은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몇 세대가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모로나이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된다.

3. 영원한 관점을 지닌다

현실을 직시하자. 시련은 닥쳐오고, 삶은 불공평하며, 때로는 그냥 모든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시련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른 어려움이 유성우처럼 쏟아져 우리를 다시 바닥으로 넘어트린다면, 삶은 특히나 더 힘들게 느껴진다.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든, 아니면 다른 어려움에 부딪쳐 있든, 때로 우리는 신앙과 희망을 붙드는 것이 벽찰 때가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과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사실, 모로나이의 상황이 그러했다. 아마 그의 말년이 그보다 더 나빠지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희망을 붙들 이유가 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든 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신앙의 본보기를 바라볼 수 있다.

모로나이의 삶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는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었다. 그는 자기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는 아버지 몰몬이 기록을 마치지 못하고 살해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기록을 마무리해야 했다. 모로나이가 자신의 기록을 작성할 당시는 레이맨인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다니던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 누군가가 모로나이가 겪었던 시련을 겪는다면, 그들은 어쩌면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하도록 유혹을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로나이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 대신, 모로나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했다.(모로나이사 1:3 참조)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할 힘을 얻기 위해 영원한 관점을 유지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약속받은 모든 축복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속죄의 축복을 통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모로나이사 10장 참조)

그것은 정말 강력한 간증이다.
상황이 더는 나빠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고 모로나리와 같은 신앙을 키우는 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은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모로나이사 10:2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의 행복의 계획이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마주할 모든 비극을 극복하도록 길을 마련해 주리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빛과 기쁨, 축복으로 우리 자신을 감쌀 수 있다.

영원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날이 오리라는 것도 신뢰할 수 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영적인 빛과 생명이 찾아옵니다. 매일 순종할 때, 우리는 일상의 도전과 기회들을 복음의 인내와 관점과 기쁨으로 맞이할 해답과 신앙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할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법을 구할 때, 온전함이 자신이나 세상의 완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유는 사랑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요한복음 14:6)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권하시며,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사 10:32)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라는 확언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이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아니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계속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위안과 평안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시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성역을 베풀려는 충실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들 및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연민을 담아, 우리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격려와 약속을 주십니다.(니파이후서 31:20) 그리스도의 교리, 구주의 속죄,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의 성약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요한복음 8:32 참조)

그분의 성약의 길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니파이후서 31:20) 약속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은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

201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몰몬과 모로나이



몰몬은 몰몬경의 대부분을 요약하고 편집했다.(몰몬의 말씀 1:3~5 참조)



15세에 니파이인 군대의 총대장이 되었다.(몰몬서 2:1 참조)

모로나이의 아버지(몰몬서 8:13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제3니파이 5:13 참조)



모로나이는 아버지와 함께 니파이인 군대에 소속되어 전투에 나갔다.(몰몬서 6:11~11 참조)



판을 정리하여 쿠모라산에 묻었다.(몰몬서 8:3~5, 14 참조)

부활한 존재로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33 참조)



내년에 새로 나올 세 가지
종류의 교회 잡지!
6쪽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 성인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42

청소년
모로나이에게 배우는
삶의 교훈

60

부모
간단한 성탄절 활동
아이디어 7가지

친1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KOREAN



4 02167 27320 2

18/27 Dec 20

친구들

『리아호나』 어린이 책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선물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께 드릴 것이 아직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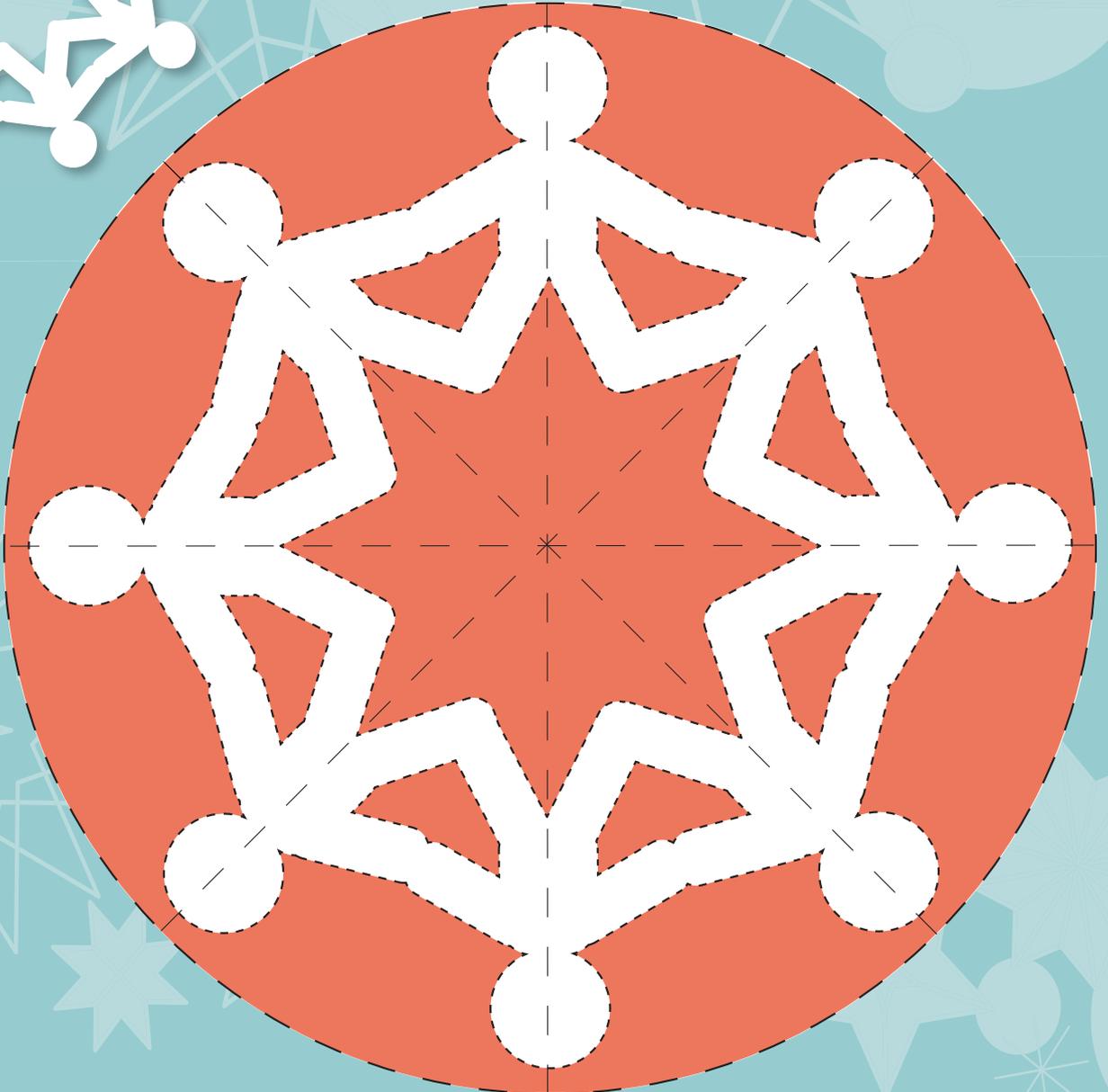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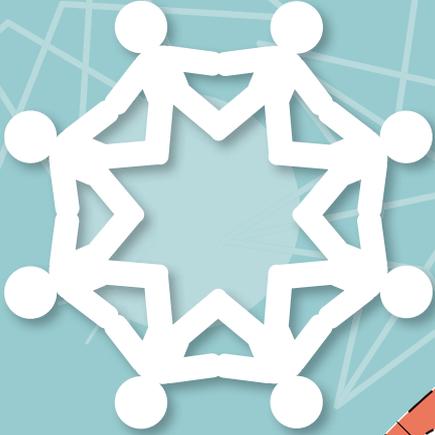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1980년 12월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인 "Gifts of Love[사랑의 선물]"에서 가져옴.

봉사 눈송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도록 이 봉사 눈송이를 만드세요.

1. 원을 오려 내세요.
2. 점선 중 하나를 따라 원을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으세요.
3. 사람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점선을 따라 종이를 오리세요. 발과 손 부분의 끝부분은 자르지 마세요.
4. 종이를 펼쳐서 각 사람 위에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완벽한 트리

시드니 스콰이어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구유에서 나신 예수 영광 중에 오시네”(찬송가, 121장)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조슈아가 성탄절 트리를 가리켰어요. 완벽한 초록색 솔잎을 달고 있는 그 트리는 늘씬하고 높대했어요.

엄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격표를 보셨어요. 그러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아니, 안 될 것 같아.”

조슈아는 한숨을 푹 쉬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은 성탄절 트리와 음식을 파는 가판대로 즐비했어요. 그리고 보체 드 노엘 [bûche de Noël: 통나무 모양의 성탄절 케이크] 같은 맛있는 후식을 만들 재료와 성탄절 트리를 사려는 가족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지요. 엄마는 먹을 거리를 사기 위해 조슈아를 데리고 오셨지만, 조슈아는 성탄절 트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크고 가늘게 뻗은 트리도 있고, 짧고 둥그스름한 트리도 있었어요. 조슈아랑 키가 똑같은 트리도 있었어요!

엄마는 올해는 가진 돈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트리를 사는 건 어려울 거예요. 조슈아는 조금 울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조슈아는 엄마랑 시장에 갈 때마다 완벽한 성탄절 트리를 계속 찾아보았어요. 어쨌면, 아마도 어쨌면, 집에 가져갈 만한 트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슈아는 엄마 손을 잡고 길게 진열된 트리의 다음 줄로



걸어갔어요. 조슈아는 숨이 턱 막혔어요. 완벽한 트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조슈아는 얼른 뛰어가서 트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트리는 진한 초록색을 사랑하는 색깔도 아니었고, 솔잎이 군데군데 빠져 있는 데다 크기도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사실 나무가 너무 굵어 있어서 마치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같은 모양이었죠.

“엄마, 완벽해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네? 제발요.”

엄마는 가격표를 훑듯 보셨어요. “그래, 이진 그렇게 비싸지 않네. 우리 차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조슈아는 뿔 듯이 기뻐했어요. 조슈아는 외투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놀면서 트리 값을 계산하는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한 친절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트리를 차에 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빠와 의붓형인 매슈가 나와서 트리를 차에서 꺼내는 걸 도와주었어요. 아빠와 형은 트리를 집 안으로 들고 가서 거실 한쪽 구석에 세웠어요.

매슈가 말했어요. “먼저 전구를 돌려야 해.”

트리가 너무 굵어 있어서 전구 두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슈는 위쪽을, 조슈아는 아래쪽을 맡아 전구를 돌려요. 그다음에는 장식을 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슈아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맨 위에 별을 끼웠어요.

아빠는 전구 불을 켜고 엄마를 팔로 감싸 안으셨어요. 조슈아는 트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트리 불빛이 방 전체를 비쳐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났어요. 조슈아는 트리 밑에 앉아서 색색이 빛나는 장식들을 올려다보았어요. 트리는 이제 휘어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름답고 완벽한 성탄절 트리였어요!

“완벽한 예수님 트리예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우리 트리는 예수님 같아요.” 조슈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트리도 시장에서는 초라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름답고 웅장해요. 마치 예수님이 아름다운 왕이 되신 것처럼요.”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완벽한 예수님 트리라니,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조슈아는 활짝 웃었어요. 올해는 분명 아주 특별한 성탄절이 될 테니까요. ●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6쪽에서 그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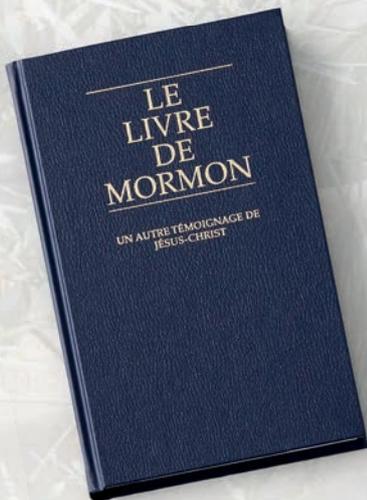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프랑스로 떠나 볼까요?



프랑스에는 4만 명 정도의 교회 회원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 성전은 2017년 5월에 완공되었어요.



이것은 프랑스어
몰몬경이에요.

프랑스는 빵과 치즈로
유명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대개 **불랜저리**
[boulangeries: 빵집]
에서 갓 구운 바게트를
매일 사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크래시[crèche:
예수님의 탄생 장면]
를 만들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요. 그 크래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지요.
성탄절 전날이 되면
크래시에 아기 예수상을
놓는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대한 거라면
모든 게 좋아요. 노래,
선생님들, 활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내용,
모두 다요. 특히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해 줄 때가
좋아요. 매주 초등학교에 가는
게 기대돼요.

줄리언 비, 10세, 프랑스 오토가론



물론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니파이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니파이의 모범에
정말 감사해요. 형제들이랑
싸우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에블린 엔, 6세, 프랑스 일드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관이예요!
이곳에는 38만 점이 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프랑스를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프랑스 어린이들은 에스카르고[escargot: 달팽이]
라는 놀이를 좋아해요. 끝까지 가려면 나선 모양을 따라
강충강충 뛰어야 해요!

프랑스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성탄절 깜짝 선물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가족들과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세요! ...
올해도 사랑으로 마음을
감싸고”(Children's Songbook, 51)

방 안으로 들어가 성탄절
트리를 보았을 때, 안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있는
온수기가 터져서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어요. 아빠는 엉망이
된 집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계셨어요. 나무 아래 놓여
있던 몇 안 되는 선물도 물에
흠뻑 젖었어요.

안나와 안나의 남동생들은
수건을 가져와서 선물의 물기를
닦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완전히 다 젖어
버렸으니까요.

안나의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빠는 현재 직장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곧 아기를 낳으실
예정이었는데,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 선물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안나는 잘 준비를
하다가 엄마와 아빠가 부엌에서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월세 낼 돈도 부족한데 이제 애들한테 줄 선물도 없잖아요.” 안나는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안나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손을 뻗어 안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나도 엄마의 배를 두 팔로 감쌌어요. 안나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안나가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아기가 생길 거예요. 엄마는 늘 아기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마도 웃음을 지으며 안나를 바라보셨어요. “맞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안나의 머리 위에 입을 맞추셨어요. “괜찮을 거야.”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안나는 남동생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나는 데이비드의 침대에 앉았어요.

“모두가 슬퍼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나직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린 선물도 없어.” 로비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안나가 다시 말했어요. “두고 봐.”

안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족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쭙었어요. 가족을 위해 선물을 살 돈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안나는 학교 갈 준비를 하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안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과 숙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 생일날 받은 종이 몇 장과 끈, 마커 몇 개와 스티커를 찾아냈어요. 안나는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지 생각하자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안나는 먼저 종이를 접고 끈으로 묶어서 작은 책 네 권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책에 붙일 별 스티커를 고르고 아빠를 위해서는 행성 스티커를 골랐어요. 데이비드의 책에는 강아지 스티커를



붙이고 로비의 책에는 로켓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런 다음, 안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그린 건 엄마를 위해 바닥을 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빠와 함께 저녁을 만드는 그림, 데이비드와 축구하는 그림, 로비에게 책을 읽어 주는 그림도 그렸어요. 안나는 며칠에 걸쳐서 그 작은 책 네 권을 모두 그림으로 채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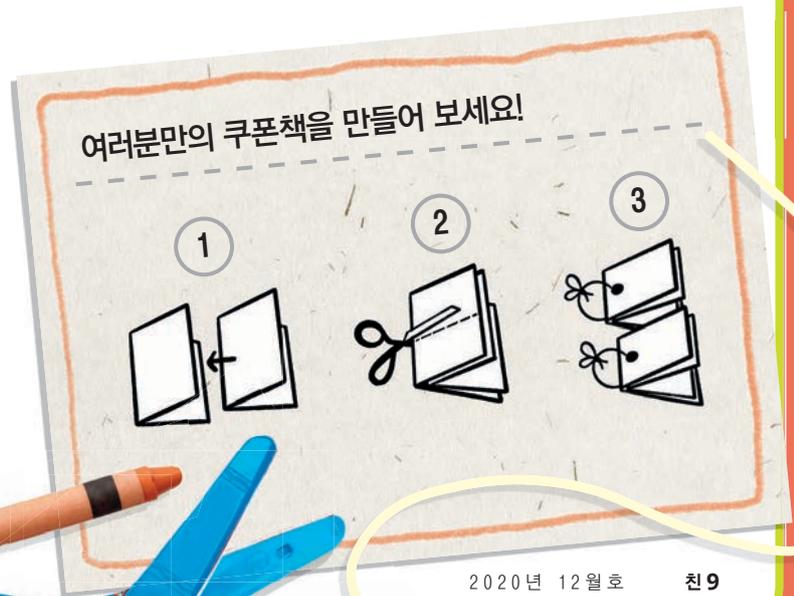
마침내 성탄절 전야가 되었고, 안나는 작은 책들을 정성스러운 손길로 나무 아래에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가족 모두에게 작은 책을 한 권씩 주었어요. “그림이 마음에 들어.”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건 쿠폰이야! 그 그림들은 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일을 보여 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했구나.” 엄마가 작은 책을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안나는 성탄절 쿠폰을 만들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어요. 새로운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우정의 선물

루시 스티븐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르만 뫼스너는 잔뜩 긴장한 채로 예배당에 들어섰어요. 수용소에서 온 헤르만과 친구들은 여전히 "P.O.W"라고 쓰인 단체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글자의 의미가 "전쟁 포로(prisoner of war)"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였죠. 과연 지부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헤르만과 친구들을 적이라고 여길까요?

그곳은 영국 리즈 근처에 있는 예배당이었어요. 하지만 헤르만은 영국 사람이 아닌 독일 사람이었어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강제로 싸워야 했던 헤르만은 영국 군인들에게 잡힌 후, 영국에 있는 한 포로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오늘은 헤르만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참석하는 날이에요.

헤르만은 의자에 앉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조지 캠 지부 회장이 예배당 앞쪽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캠 회장은 헤르만의 친구였어요. 미소를 짓는 캠 회장을 보니 헤르만은 마음이 좀 놓였어요.

몇 개월 전, 캠 회장은 헤르만이 수용소에 있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셨어요. 처음에 헤르만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캠 회장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어쨌든 캠 회장의 조국인 영국과 헤르만의 조국인 독일은 서로 맞서 전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헤르만과 캠 회장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성찬도 취했어요.





캠 회장님이 떠날 때가 되자 헤르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캠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후로 캠 회장님은 토요일마다 헤르만을 만나러 가셨어요.
헤르만은 주중에도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했어요. 헤르만은
들판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포로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어요.
긴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엔 나무 조각을 하면서 동료 포로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어요. 가끔은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요.

“이봐, 헤르만.” 어느 날 한 포로가 헤르만에게 물었어요.
“토요일에 캠 씨가 오면 나도 같이 만나도 될까?”

헤르만은 조각하고 있던 나무토막에서 시선을 떼고는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물론이지!”

“나도 그래도 될까?” 다른 포로도 부탁했어요.

헤르만과 캠 회장님은 더 많은 포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했어요. 곧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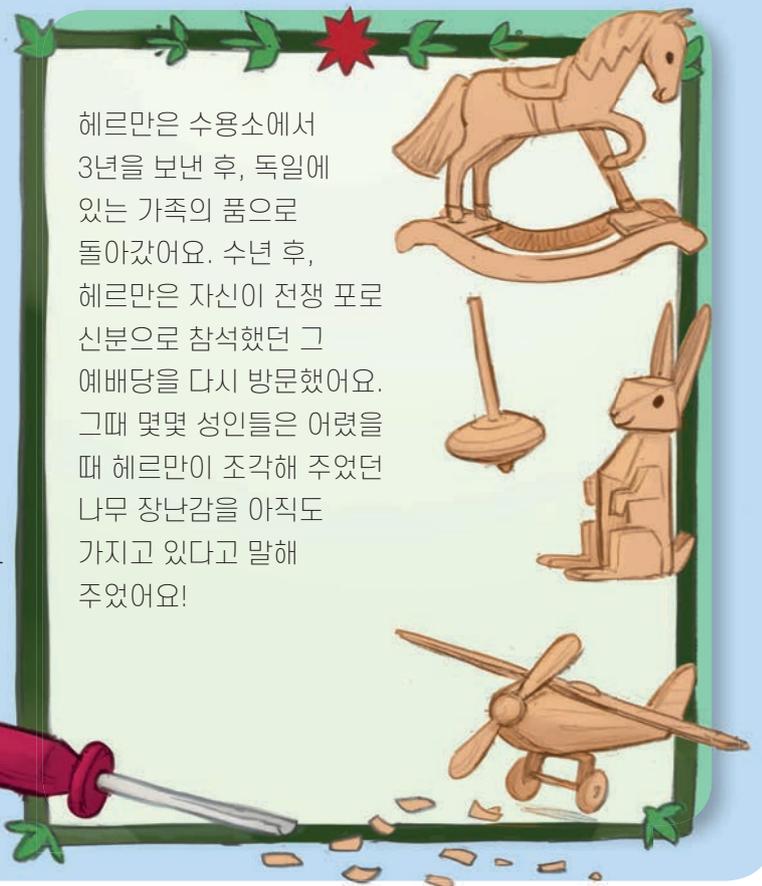
그리고 지금, 헤르만은 예배당에 모여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평화를 느꼈어요. 처음에 몇몇 회원들은
헤르만과 가까이 있을 때 불안해했지만, 곧 모두가 헤르만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복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다른
포로들도 수용소 출입 허가를 받아 일요일에 헤르만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나중에 헤르만은 지부 주일학교 회장으로도 부름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헤르만은 자신을
극진히 대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얼마 뒤면 지부 성탄절 파티가 열릴 거예요.
헤르만은 나무토막을 더 모아서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헤르만의 손을 거친 나무토막들은 작은 자동차와 코끼리, 비행기,
기차, 말 등이 되었지요.

마침내, 파티 날이 되었어요. 회원들은 모두 함께 음식을 먹고
성탄절 노래를 불렀어요. 헤르만과 수용소 친구들은 독일어로
성탄절 노래를 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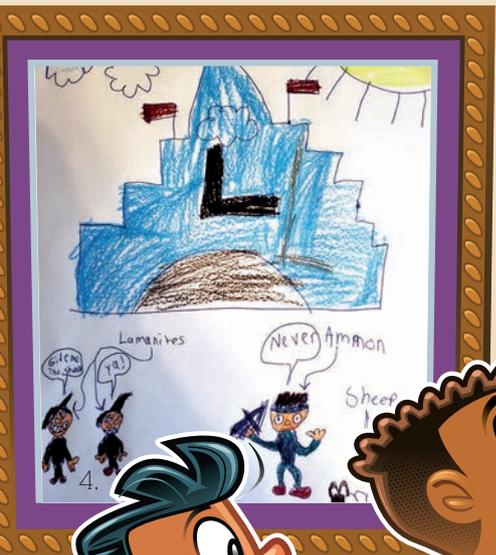
그리고 헤르만은 큰 포대를 꺼내 왔어요. 그 안에는 나무
장난감이 40개나 들어 있었어요! 헤르만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성탄절이었어요. ●



헤르만은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후,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수년 후,
헤르만은 자신이 전쟁 포로
신분으로 참석했던 그
예배당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때 몇몇 성인들은 어렸을
때 헤르만이 조각해 주었던
나무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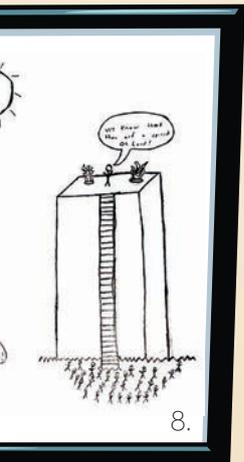
몰몬경
작품
전시회!



아이들과 함께 감상: 개리 리크스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물몬경 작품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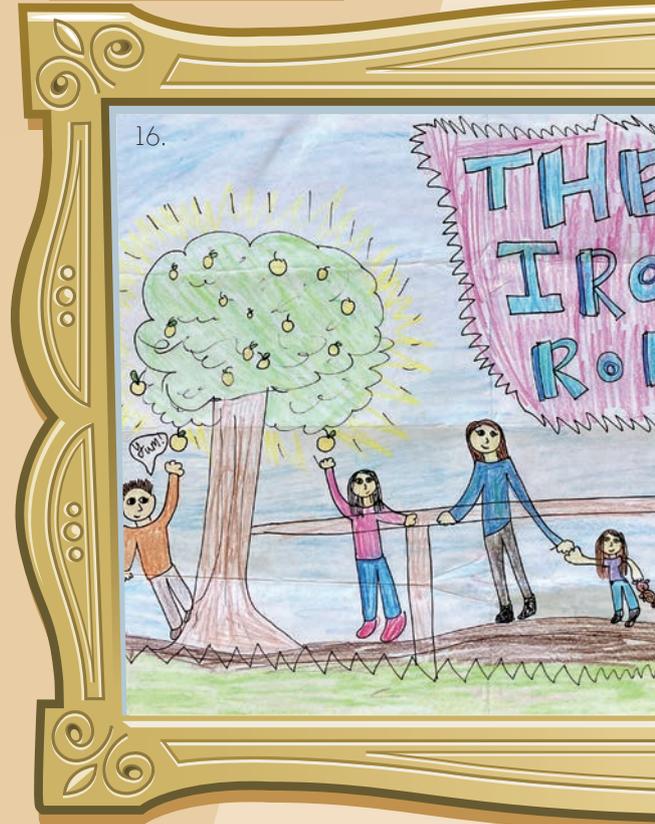
15.



9.



12.



16.



10.



13.

1. 이안 디, 9세, 멕시코 베라크루스
2. 제이컵과 조지 지, 10세와 7세, 독일 라인란트팔츠
3. 펠리페 엘, 8세, 브라질 상파울루
4. 클로이 디, 8세, 호주 퀸즐랜드
5. 페르난다 에이, 10세, 멕시코 치와와
6. 슬라이드 에이, 9세, 미국 아이다호주
7. 리지 피, 8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8. 샬럿 비, 7세, 미국 테네시주
9. 애머 에스, 8세, 베네수엘라 안소아테기
10. 제이컵 에이, 10세, 캐나다 앨버타주
11. 로렌 에스, 9세, 미국 워싱턴주
12. 아나히 에프, 8세, 우루과이 카넬로네스
13. 마틴 에스, 5세, 아르헨티나 후후이
14. 월 비, 8세, 미국 유타주
15. 조하네스 에이치, 10세, 미국 플로리다주
16. 앤디 에스, 7세, 미국 네바다주
17. 이나스 에스, 9세, 포르투갈 비제우
18. 케일라 에스, 9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더블유 마크
배셋 장로
칠십인 정원회

맥스를 위한 기도



제가 여섯 살 때, 저희 와드에 계시는 한 연세 지긋하신 부부가 당신들이 기르시던 개 맥스를 입양시킬 좋은 가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맥스를 사랑해 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스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에 제 친구들이 며칠간 우리 집에서 지내려고 놀러 왔습니다. 우리 집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장난기 많은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조용하고 잘 정돈된 집에 익숙한 개였습니다. 요란한 아이들로 가득 찬 집에 있게 된 맥스는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신나게 웃으며 놀던 우리는 맥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맥스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자동차를 타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울음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맥스의 예전 주인 분들에게도 가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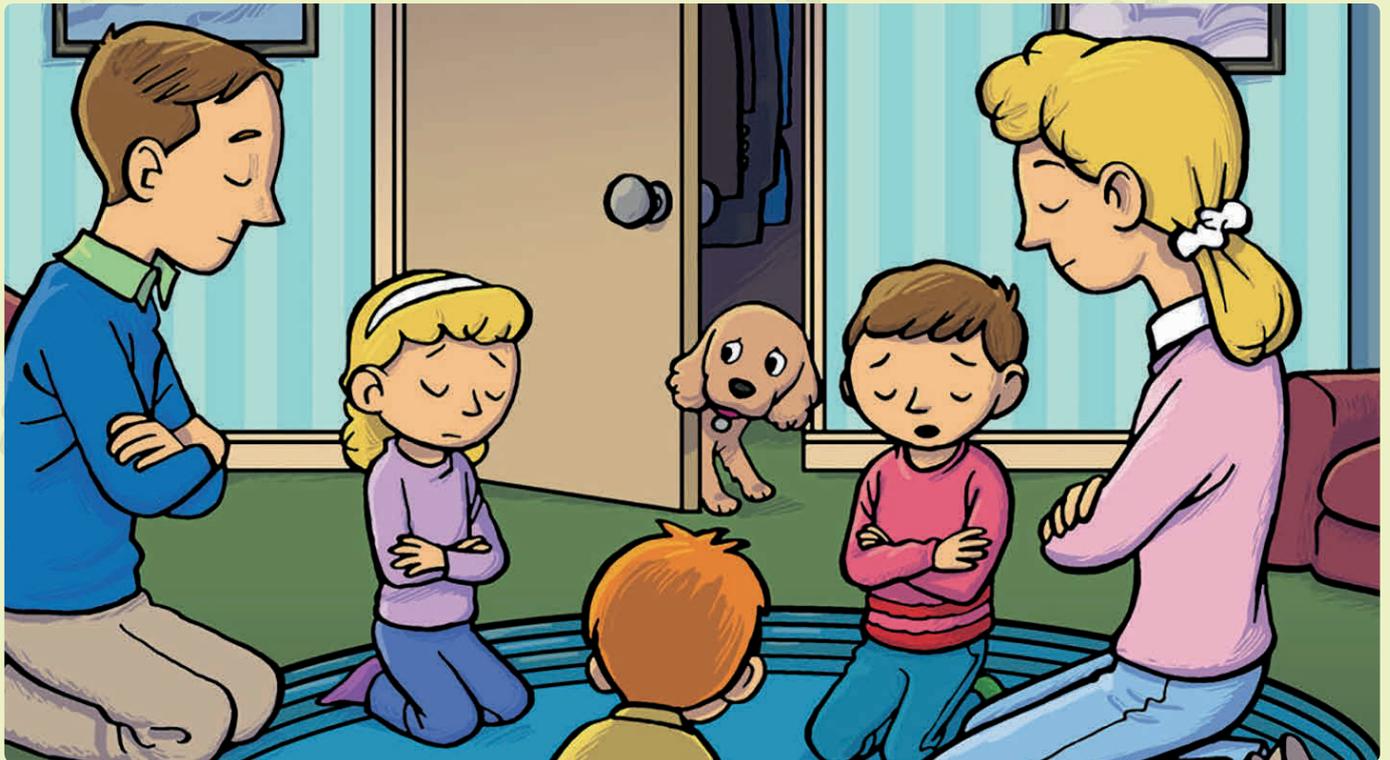
하지만 맥스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맥스를 위해 기도해 보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에서 맥스를 찾아보면 좋을지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자마자 옷장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과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





세상을 비추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과 사랑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빛을 느끼고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몇 가지 있어요. 각 활동을 마치고 나서 숫자가 쓰여 있는 부분을 색칠해 보세요.

- 1. 누가복음 1장 26~31절을 읽고 "마리아의 자장가"를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28쪽)
- 2. 누군가를 위해 성탄절 카드를 만들고 "그 어르신 예수"를 부른다. (『찬송가』, 131장)
- 3. 누가복음 2장 4~7절을 읽고 "베들레헴 가는 요셉"을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22쪽)
- 4.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일을 하고 "아들 보내셨네"를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 20쪽)
- 5. 누가복음 2장 8~18절을 읽고 "천사 찬송하기를"을 부른다. (『찬송가』, 133장)
- 6. 마태복음 2장 1~11절을 읽고 "동방박사 두렵으로"를 부른다. (『찬송가』, 126장)
- 7.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하고 "고요한 밤"을 부른다. (『찬송가』, 134장)

상화: 배서니 스텐클리프



이웃과 함께한 성탄절 연극

로레인 스타크스
(실화에 근거함)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니파이후서 19:6)

로즈는 까치발로 서서 창밖을 빼꼼히 내다보았어요. 곧 있으면 초대할 사람들이 도착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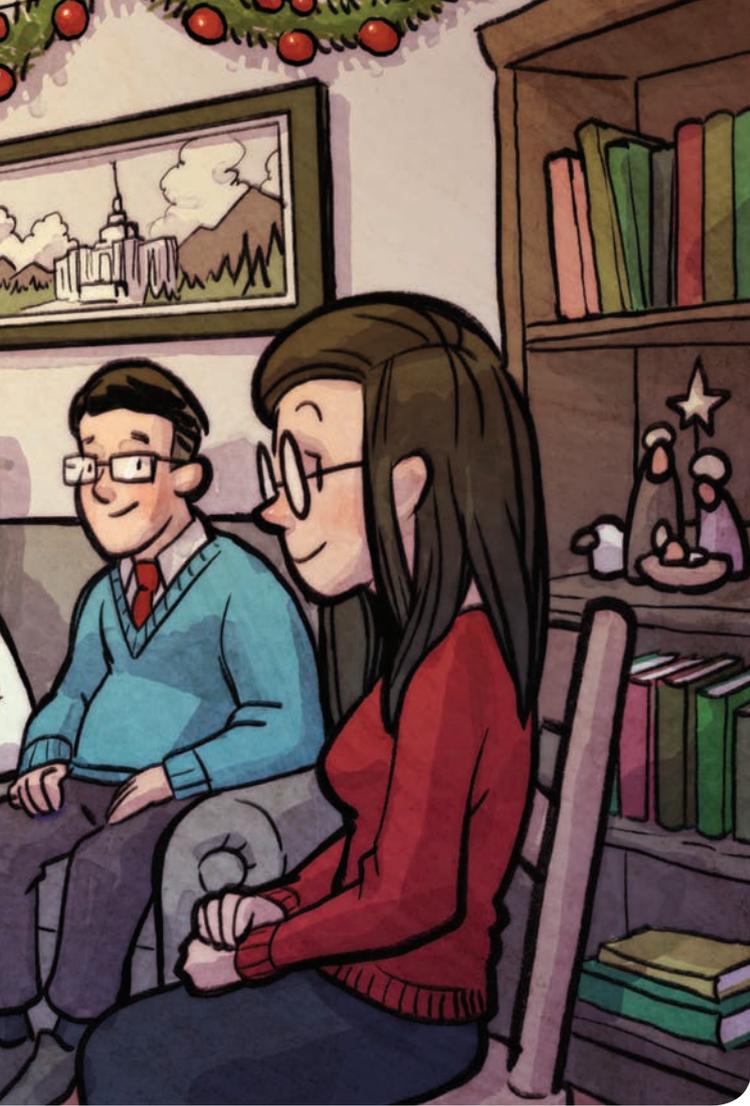
매년 성탄절이 되면 로즈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지요. 올해는 이웃들과 선교사들을 초대했어요! 이웃 부부의 아기가 아기 예수 역할을 맡게 돼서 로즈는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엄마는 오븐에서 간식을 꺼내셨고, 로즈의 남동생은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웠어요. 언니 엘런은 연극 의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즈는 테이프로 큼지막한 노란색 별 장식에 벽에 붙였어요.

“로즈.” 엄마가 부엌에서 부르셨어요. “엘런이 의상 준비하는 걸 도와주겠니?”

“네, 엄마!” 로즈는 담요를 한아름 들고 있는 언니를 도우러 갔어요.

“여기 담요랑 수건, 그리고 옷장에서 빼 온 의상 몇 벌이



있어.” 엘린이 말했어요. “이 바구니는 구유로 쓰면 되겠다.” 엘린이 로즈에게 큰 바구니를 건넸어요. 로즈는 바구니 안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 아기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어요.

“완벽해.” 로즈가 말했어요.

로즈의 남동생 잭은 머리 위로 회색 담요를 두르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 당나귀 역할 해도 돼?”

로즈가 깔깔 웃었어요. “안 돼! 벌써 까먹은 거야? 너 동방박사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 맞다!” 잭이 대답했어요. 잭은 장난감 왕관을 집어서 머리에 썼어요.

그때, 푹푹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초대한 사람들이 왔나 봐요!” 로즈가 말했어요. “제가 열어

줄게요.”

곧 로즈네 집은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로즈는 모두가 알맞은 의상을 챙겨 입도록 도와줬어요. 자매 선교사들은 목자, 로즈의 남동생과 언니는 동방박사를 맡았어요. 귀여운 이웃집 아기는 아기 예수가 되고, 아기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조셉이 되었지요.

로즈는 보드라운 흰색 모자를 썼어요. 로즈가 맡은 역할은 양이었어요.

마침내 모두들 의상을 갖춰 입고 공연 준비를 마쳤어요. 로즈의 와드에서 봉사하시는 부부 선교사인 앤시 장로님과 자매님은 신약전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펴셨어요. 부부 선교사님들은 큰 소리로 성구를 낭독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어요.

공연 마지막 순서는 다 같이 “고요한 밤”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로즈의 마음에 따스함과 행복이 밀려왔어요. 로즈는 그게 성신의 느낌이라는 걸 알았어요. 꼭 예수님이 로즈의 마음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엄마가 “사무엘과 새 별”이라는 동영상을 틀어 주셨어요. 폐회 기도는 엘린이 했어요. 그다음엔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었지요. 모두가 로즈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다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니?” 앤시 자매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았어요.” 엘린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랑 노는 것도요.” 엘린은 자기 무릎 위에 앉은 아기를 살살 흔들며 주었어요. 엘린은 노래가 끝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랑 놀아 주고 있었어요.

“전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게 좋았어요.” 잭이 말했어요. 잭은 아직도 장난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로즈는 뭐가 좋았니?”

로즈는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전부 다요!” 로즈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그게 성탄절이 있는 이유니까요!”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올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과 새 별



아주 오래전 바다 저 멀리 떨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는 우리 구주의 탄생을 대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지상에 오실지를 말했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사무엘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쫓아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는 성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벽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외쳤어요.



“곧 5년이 지나고 나서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고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이 5년이나 남았고 저 멀리에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날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내고 발을 구르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 힘껏 돌을 던지고, 활을 쏘았어요. 그러나 돌과 화살은 모두 사무엘에게서 빗나갔어요.



충실한 사람들은 별이 나타나고, 빛이 있고, 황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5년 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의 구유에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어요. 사람들은 빛을 보고는 만물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지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행했을 때,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세요. 오래전 사무엘이 했던 약속처럼 말이예요. ●

이 동영상은 bit.ly/3cz7F2j에서 시청할 수 있어요.
또는 힐라맨서 13~15장,
제3니파이 1장 13~15절, 21절을 읽어보세요.



모로나이는 우리를 위해 경전을 지켰어요



선지자 몰몬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엮었어요. 그는 그 내용을 금판에 기록했어요. 몰몬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그 책을 소중하게 지켜 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로나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는 판을 안전하게 지켰어요. 때로
 모로나이는 간악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자주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로나이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책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모로나이에게 보여 주셨어요. 모로나이는
 판에 자신의 간증도 기록했어요. 그는
 우리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모로나이에게 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땅에 묻으라고 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조셉 스미스가
 그 판을 번역했어요. 이제 그 판은
 몰몬경이라는 책으로 인쇄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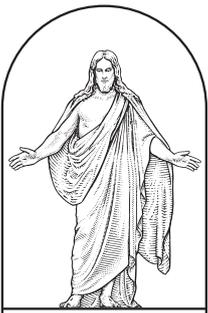
물문경은 저를 위해 기록되었어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물문경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문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

물문서 8장과 물문경 소개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세요.

물몬경은 나를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올해 물몬경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번 호에는 모두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한 가지 선물은 여러분의 언어로 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독립된 잡지로서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곧 2021년 『친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나 보게 되실 것입니다.

-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함께 하는 매달의 도전 과제
- 여러 나라의 개척자 이야기
- 교회 역사 카드
- 전 세계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더 많은 이야기!

『리아호나』 개정판에 『친구들』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여러분은 store.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현지 교회 배부 센터에서 『친구들』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리아호나』 구독권은 자동으로 『리아호나』 개정판 구독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친구들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선물
- 친4 완벽한 트리
- 친6 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 친8 성탄절 깜짝 선물
- 친10 용감한 모범: 우정의 선물
- 친12 물몬경 작품 전시회!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맥스를 위한 기도
- 친15 재미있는 활동: 세상을 비추라
- 친16 이웃과 함께한 성탄절 연극
- 친18 사무엘과 새 별
- 친20 경전 이야기: 모로나이는 우리를 위해 경전을 지켰어요
- 친23 색칠하기: 물몬경은 나를 위한 책이에요!

책 안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표지
삽화: 캐슬린 피터슨

© 2020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스유

